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시| 2019년 8월 9일(금),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신동근(더불어민주당), 박인숙(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김수민(바른미래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최경환(민주평화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KOREA TOTAL FEDERATION CIL



시 한국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주관|  국회의원 신동근 의원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OGRAM

구분	시간	내용
등록 및 개회	13:4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20	개회 및 인사말
발제	14:20~15:40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 및 시사점 박근화(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석전문위원)
		• 장애예술 활성화 방안 제언 백령(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 및 콘텐츠 접근성 현안과 과제 최도인(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의 문화예술활동의 가치와 의미 정중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수석부회장, 직업재활학 박사)
휴식	15:40~16:00	휴식

좌장 조향현(사회복지법인 SRC 상임이사)

토론	16:00~17:00	정종은(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최승원(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비상임 고문)
		배은주(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이사장)
		송은일(문화날개자립생활센터 소장)

C CONTENTS

축 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1
박인숙 자유한국당	2
이명수 자유한국당	3
김수민 바른미래당	4
이동섭 바른미래당	5
최경환 민주평화당	6

인사말/환영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7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	8
안중원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9

발제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 및 시사점	11
박근화 한국관광연구원 수석전문위원	
발제 2. 장애예술 활성화 방안 제언	45
백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발제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 및 콘텐츠 접근성 현안과 과제	65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발제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의 문화예술활동의 가치와 의미	87
정중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수석부회장, 직업재활학 박사	
토론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토론문	97
정종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토론 2. Before와 After 그리고 Difference와 Development, Satisfaction	103
최승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비상임 고문	
토론 3. 장애예술인의 지원정책 마련 및 문화권 보장에 대한 방안	107
배은주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이사장	
토론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생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113
송은일 문화날개자립생활센터 소장	

축사

신 동 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신동근의원(더민주, 인천서구을)입니다.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토론회 개최를 위해 공동주최해주신 여·야의원님들과 행사를 주관해주신 (재)한국 장애인문화예술원, 후원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로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거듭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을 아십니까?

지난 2012년에 시작해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 이 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는 대표 장애인 예술축제입니다. 지난해 4회째를 맞이했고, 당시에는 34개국에서 120명이 참여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시작단계에 놓은 장애예술의 가능성을 믿고 대형 축제로 밀어붙이는 영국의 저력에 놀란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물론 영국은 이미 수십년 동안 장애 예술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고, 여기에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가적 문화 정책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예술에 대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문체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보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예술인은 5,972명,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25,722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과 관련해서는 연습, 창작 및 발표공간, 공연장 확대의 필요성이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 및 인프라 구축, 접근성 향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좀더 심도있게 접근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 번 성공적인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저 역시 힘을 보태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9

축사

박 인 숙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도 ‘장애인 예술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회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장애예술인이 작품발표의 기회를 갖기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총 5,97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애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연습 공간, 창작 및 발표 공간 또한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합니다.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이 2011년 제정되었지만, 지원이 가장 절실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 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장애예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 21일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금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이 문화진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사회구성원으로써, 정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장애인 예술활동환경의 실태를 살펴보고,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자리가 그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써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예술인 분들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9

축사



이 명 수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출신 이명수 의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신동근 의원님, 박인숙 의원님, 김수민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그리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문화지표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정책과 예산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예술활동가들의 예술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헌법 제11조1항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문화·예술 활동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 예술활동가들이 충분한 여건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해야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결과 장애예술인은 5,972명,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25,72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예술인에 비해 장애인 예술활동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그만큼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장애인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습·창작 및 발표 공간 및 공연장 확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활동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예술활동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검토되길 바라며, 실질적인 장애인 예술의 여건이 개선되는 자리이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예술활동 격차를 줄이는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 8. 9

축사

김 수 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님,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님,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신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발표되는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재조명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활용되는 기초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예술인의 권익 확대는 물론 장애인 예술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 역시 커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문화의 울타리는 아직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을 점진 및 계획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장벽과 울타리를 걷어내는 일에 박차를 가해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장애인의 다층적 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 확대 등 장애인의 다양한 예술분야 향유 및 창작, 교류와 교육이 보다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장애인 예술가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생활을 영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신 한분 한분의 의원님과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 8. 9

축사

이 동 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입니다.

먼저 ‘장애인 예술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장애예술인의 활발한 예술활동을 어렵게 하는 여러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환경과 관련하여 예술 활동 창작 및 발표기회 확대를 위한 연습, 창작 및 발표공간, 공연장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해당 문제들이 개선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문화 다양성을 갖춘 사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문화 다양성 정책에 발맞추어 장애인예술가 창작지원, 인재 발굴 및 육성, 기획 사업 등 장애인 예술 정책 마련 및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 분들의 열띤 토론이 장애인들이 단순 노동이 아닌 예술활동을 수행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표출하는 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입법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본 토론회가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 장애인들의 더욱 왕성한 예술활동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9

축사

최 경 환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 예술활동, 창작·발표 기회 확대되어야

문화예술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활동 또한 차별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향유도 활동도 장애인들에게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문화예술발전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계신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서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창작 및 발표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광주를 비롯한 부산, 제주, 대구문화재단이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 중입니다. 이번에는 4곳이 선정되었지만 더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이러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망한 장애예술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좋은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정책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9

인사말

박 양 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위해 애쓰신 국회 신동근 의원님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장애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설립했고, 2015년 11월에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연습·공연활동을 지원하는 이음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또한 함께누리 지원사업 등의 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를 조사해 장애예술의 현장 변화와 장애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 정부에 바라는 정책 등을 파악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도 장애예술인들과 함께 예술활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와 이번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으로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9. 8. 9.



장 진 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다양성 정책에 부합하도록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여건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에 함께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하지만 그 초록도 얼마나 많은 제 나름대로의 색깔을 지니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장애예술인이 각각의 개성을 지닌 인격체이며 더 나가 그 재능과 창의성의 기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술활동의 여건이나 접근권 및 정책의 소홀함 속에 소외되어 있는 사례는 오늘날 곳곳에서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문학을 통해 예술인으로 활동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만,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으로써 선배문인들의 창작활동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하는 역사문화공간의 현장체험 기회에서는 늘 제외되어 비장애인 문인들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목표가 있고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듯이, 진정 원하는 것은 수혜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꿈을 키우면서 역량을 발휘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의 현주소를 선진사회로의 진입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는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슬로건도 있듯이 국민들의 삶을 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예술인에 대한 복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적 역할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의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단순히 끼를 발산하는 불거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선진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모든 장애예술인에게 기회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장애예술인의 염원과 함께하는 토론회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 8. 9.

환영사

안 중 원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안중원입니다.

장애인 예술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최근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증가하고 규모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뢰도 있는 조사가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현황을 파악하고자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장애 예술인들은 공연공간, 연습공간 등 창작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교육의 기회, 창작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장애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고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과 함께 참석하신 분들께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 문화예술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9.

발제 0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 및 시사점

박근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석전문위원(통계관리팀장)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 및 시사점

2019. 8. 9. 박 근 화



목 차

I. 선행연구	2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23
1. 국내 조사연구		1. 예술 활동 현황	
2. 해외 조사연구		2. 협업 및 교류 경험	
3. 장애 예술의 정의		3.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4. 선행연구에서 고려사항		4. 장애 예술인 교육	
		5. 문화향유 실태	
II. 조사개요	12	IV. FGI 주요 결과	39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개요	
2. 조사 대상		2. 주요 결과	
3. 조사 범위		3. 장애 유형별 주요 결과	
4. 조사 모집단		4. 예술 분야별 주요 결과	
5. 조사 방법 및 내용		V. 결론	44
6. 응답자 특성		1. 조사의 의의	
7. 수행 프로세스		2. 제언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I. 선행연구

1. 국내 조사연구

I. 선행 연구

1) 한국장애인 복지 진흥회(2007) 장애문화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내용	- 창작여건과 만족도 - 단체활동 및 예술창작활동 - 디지털환경과 예술활동	- 교육과 직업 - 의식과 문화예술정책
대상	한국장애인 문인협회 회원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회원
표본	목표표본 : 1,000명(협회별 500명)	응답표본 : 361명(문학 189명, 미술 172명)
조사방법 및 시점	조사방법 : 우편조사	조사시점 : 2007년 9월17일~10월 22일

		빈도(%)		
		전체	문학	미술
장애유형	지체장애	228 (65.0)	109 (59.9)	119 (70.4)
	뇌병변장애	68 (19.4)	50 (27.5)	18 (10.7)
	시각장애	9 (2.6)	6 (3.3)	3 (1.8)
	청각장애	29 (8.3)	6 (3.3)	23 (13.6)
	정신지체	7 (2.0)	4 (2.2)	3 (1.8)
	기타	10 (2.7)	7 (3.8)	3 (1.8)

1. 국내 조사연구

I. 선행 연구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장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내용	- 창작여건과 만족도 - 단체활동 및 예술 창작 활동 - 창작 지원금 수혜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정책 - 경제적 조건
대상	-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회원 - 한국장애인 음악협회 회원	장애인 문화단체 쏠대문화 회원
표본	목표표본 :	응답표본 : 126명(문학 24명, 미술 52명, 음악 18명, 연주 등 공연 24명 다원 예술 5명)
조사방법 및 시점	조사방법 : 현장방문,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조사시점 : 2010년 8월~10월

4

1. 국내 조사연구

I. 선행 연구

3) 문화체육관광부(2012)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

내용	- 예술분야별 창작활동 - 창작여건 - 대외 채널 및 교류 - 문화예술교육	-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 - 장애인 예술인 복지 - 예술활동에 대한 인식 - 장애예술센터 수요	- 예술관람 현황 - 문화시설이용 - 응답자 특성
대상	장애를 가진 예술인으로서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회원 (예술활동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향유 경험이 있는 장애인)		
표본	목표표본 : 예술활동 경험 장애예술인(300~500명) 문화향유 경험 장애인(300~500인)	응답표본 : 장애예술인 591명 향유장애인 409명	
조사방법 및 시점	조사방법 : 면접 및 우편조사	조사시점 : 2012년 9월 14일 ~ 12월 12일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문화향유 경험 장애인(409명)									
	인원	비율	전체	국악	대중 예술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지체장애	241	24.1%	591	29	31	26	60	176	9	62	32	166
뇌병변장애	79	7.9%										
시각장애	127	12.7%										
청각장애	27	2.7%										
언어장애	1	0.1%										
지적장애	84	8.4%										
자폐성장애	18	1.8%										
정신장애	7	0.7%										
신장장애	3	0.3%										
심장장애	1	0.1%										
호흡기장애	2	0.2%										
안면장애	1	0.1%										
간질장애												

5

2. 해외 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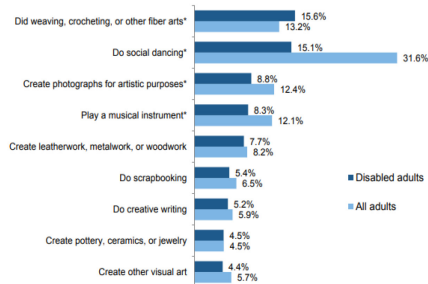
I. 선행 연구

1) 미국(2012) 예술의 공공참여에 관한 조사(Survey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 SPPA)

● SPPA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대표표본에 대해 예술 참여 패턴을 조사

- 미국 성인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2천800만 명의 성인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65세 이상이 45%를 차지함)
- 공연 예술 행사에 참여 혹은 미술관에 방문하는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성인의 7% 미만에 불과
- 장애인은 라디오, TV,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고전음악, 오페라, 연극, 춤에 관한 프로그램을 듣거나 보는 것은 비장애인과의 유사하였으나, 휴대기기를 활용하여 예술을 소비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예술에 대한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교육수준이 낮다는 점과 유년시절의 특정 예술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사실이었음

Percent of U.S. Adults Who Created or Performed Art, by Disability Status: 2012



* Differences between disabled adults and total U.S. adult population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90 percent level.
Source: 2012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

* 장애인 문화권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선택의 문제인가? 미국 장애인의 예술참여 형태(A Matter of Choice? Arts Participation Patterns o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내용 정리 및 요약

6

2. 해외 조사연구

I. 선행 연구

1) 미국(2012) 예술의 공공참여에 관한 조사(Survey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 SPPA)

대상

- 조사는 CPS가구의 2분의 1에 실시됨

표본

- 표본 : 20,847 가구의 35,735명이 응답하였음(20,847명의 성인과 대가구의 3,506명, 11,382명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대리응답)

조사방법
및 시점

- 조사방법 :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 성인 장애 상태에 관한 질문 추가
- 조사시점 : 2011년 7월1일 ~ 2012년5월1일
- 조사기간 : 2012년7월15일~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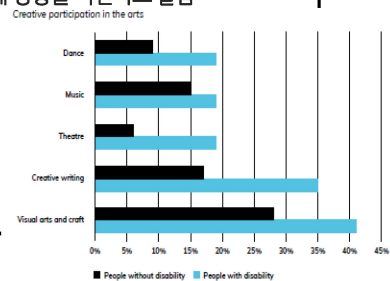
7

2. 해외 조사연구

I. 선행 연구

2) 호주(2018) 예술과 장애에 관한 연구(Research Overview Arts and Disability in Australia)(2018)

- 호주 전국의 예술 및 장애의 실천을 강조하는 사례연구를 제공
 - 호주의 예술과 장애에 관한 전략은 2009년 문화장관회의(the meeting of Cultural Minister)에서 합의한 4가지 중점 전략을 따름(접근과 참여(Access and Participation), 예술과 문화 실천(Arts and cultural Practice), 청중 개발(Audience Development) 전략적 개발(Strategic Development))
- 연구에서 활용한 호주통계청(ABS)의 「장애, 연령, 경력에 관한 조사(SDAC, Survey of Disability, Ageing and Carers)(2015)」에 따르면, 2015년 호주에서 창조 및 문화적 직업에 종사하는 569,400명 중 9%인 51,250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
 -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은 예술을 실천하는데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수익의 부족이라고 말함.
 - 장애 예술인(artists with disability)의 90%는 장애가 그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함
- 연구에서 활용한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의 「국가적 예술 참여 조사(National Arts Participation Survey)(2017)」에 따르면, 2016년 예술에 참여한 장애가 있는 사람(people with disability creatively participated in the arts)은 61%



8

3. 장애 예술의 정의

I. 선행 연구

1) 장애 예술

- 장애인 예술(Arts done by disabled people)
 - : 장애인 예술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로 한시적으로 정의함(전병태, 2014)
- 장애 예술(Disability arts)
 - : 문화다양성과 평등의 기초 아래 장애, '장애 예술'을 접근할 경우, 장애 예술은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짐.
 - 즉 장애 예술(disability arts)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라는 경험이 반영되어, '장애'요소를 매개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국예술위원회(2010)의 <장애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 2010-2013)> 제2차 계획에서는 “장애 예술은 장애에 대한 삶의 경험을 탐구하고 소통하는 작품을 나타내는 특정 장르임. 장애 예술은 특정 장르이지 장애인이 창조한 모든 작품을 말하는 것은 아님” 이라고 서술하고 있음
- 포용적 예술
 - :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협업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창의적 활동과 미학적 전략의 범주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영역을 의미함(백령 외, 2018)
 - 영국은 포용적 예술을 ① 일차적으로는 학습장애와 비학습장애 예술인과의 협업구조를 기반으로, ② 광범위하게는 장애인과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예술로 정의함

9

3. 장애 예술의 정의

I. 선행 연구

2) 장애 예술인

- 예술 창작을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며,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예술활동 하는 사람(전병태, 2014)

- 유네스코의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1980)에 따르면, 예술가(artist)는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

● 장애 예술인 개념의 정의

	기준	근거
장애 예술인	- 법적 장애인으로 일정 기간(3년)의 예술활동 여부로 판단 - 분야별(문학, 미술) : 예술활동에 의한 수상, 출판 혹은 전시 경력, 권위 있는 문학 혹은 협회의 추천여부로 판단	한국장애예술인총람 (2010)
	- 발표 횟수 등 일정 예술활동 여부로 판단 - 개인 : 예술활동에 의한 수상 경력, 발표 횟수로 판단 - 단체 :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을 위한 설립목적, 장애 예술인 회원의 일정한 할당, 발표 횟수로 판단	장애예술인수첩 (2018)

10

4. 선행 연구에서 고려사항

I. 선행 연구

- 우리나라의 장애 예술인 관련된 조사 표본이 적으며, 조사방법(특히 우편조사)은 조사의 대표성을 만족하기 어려움
- 예술인 관련된 국민 전체에 대한 조사가 없음
 - 이는 국가차원의 조사에 장애인 관련된 문항을 부여함으로써 조사함으로써 통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거의 전무한 상태임
- 장애 예술인 관련된 조사는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유형에 치우친 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다른 나라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논의되어진 장애 예술에 대한 개념은 예술인의 전문성의 면모에 주목한 개념적 정의에 가까움
 - 따라서 비장애 예술인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장애 예술인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음
 - 장애인들이 활용이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새로운 분야의 예술의 개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포용적 예술의 관점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정의에 의한 산출과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의에 의한 산출이 모두 가능한 방안의 조사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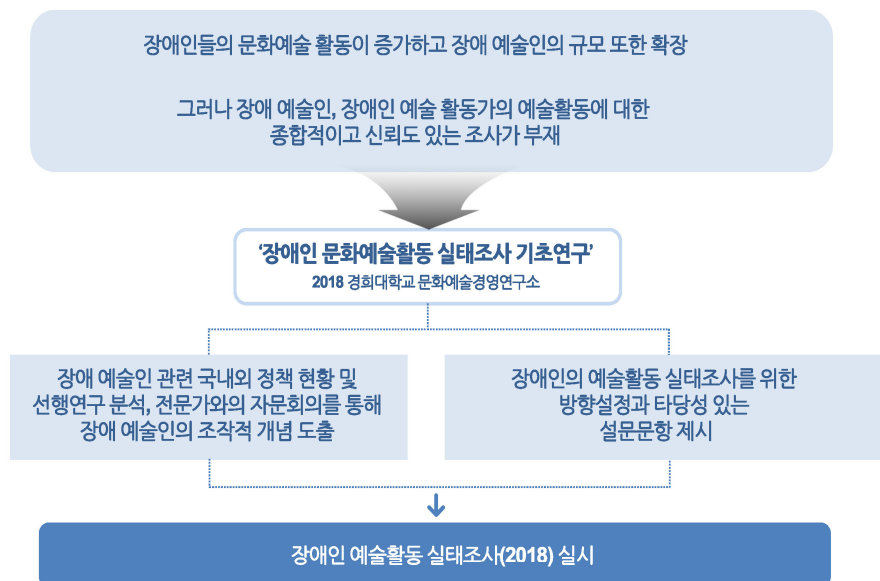
11

I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I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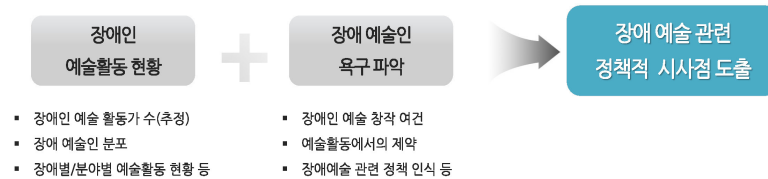


1. 조사 배경 및 목적

II. 조사 개요

2) 조사 목적

- ✓ 장애 예술인 및 예술활동 경험 장애인 현황 파악을 위한 모집단구축
- ✓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장애 예술인 및 장애인 예술 활동가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
- ✓ 관련분야 정책수립 시 합리적 의사결정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14

2. 조사 대상

II. 조사 개요

- ✓ 만 15세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애 예술인 및 장애인 예술 활동가

만 15세 이상

장애 예술인

장애 유형 (7개)

예술 분야 (14개)

장애인 예술 활동가

장애 유형 (7개)

예술 분야 (14개)

| 장애인 예술 활동가와 장애 예술인 조작적 정의

장애인 예술 활동가		
공통기준	근거	해당
2018년 한 해 동안 기관/협회/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창작활동을 하여 발표, 출판, 전시, 공연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잠정적인 장애인 예술인(현 장애인 예술 활동가)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	해당

장애 예술인		
공통기준	근거	해당
1 본인을 예술인이라고 생각한다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198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8) 전병태(2014)	5가지 공통기준 중 1개 이상 해당
2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되어 있다	「예술인복지법」	
3 (기관/협회/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예술인총람(2010) 장애예술인수첩	
4 장애인 및 예술 관련 협회, 전국적 단위의 행사에서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다	「예술인복지법」	
5 장애인 및 예술 관련 협회, 전국적 단위의 행사에서 초청되어 예술 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한국장애인예술인총람(2010) 변형	

15

3. 조사 범위

II. 조사 개요

| 내용적 범위 **✓ 7개 장애 유형과 14개의 예술분야로 구분함**



| 시간적 범위 **✓ 2018년 1년(2018.1.1 ~ 2018.12.31)을 기준으로 함**
(단, 장애 예술인, 장애인 예술 활동가를 확인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지난 3년(2016.1.1. ~ 2018.12.31)을 기준으로 함)

※ 향후 예산이 증분할 경우 장애 유형은 확대 필요

16

4. 조사 모집단

II. 조사 개요

1) 기관/협회/단체 모집단

- 장애 예술인 및 예술활동 경험 장애인(장애인 예술 활동가) 현황 파악을 위한 기관/협회/단체 조사를 통해 모집단을 구축함
 - 기관/협회/단체에는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장애인단체 등이 포함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문체부에서 예술창작 관련 지원할 기관은 전수조사 대상으로 하였음
 - 목표 조사기관은 1,000개의 기관이지만, 응답기관은 944개임(이는 전수조사대상에서 응답을 많이 하지 않은데 원인)
- 장애예술가에 대한 모집단이 없기 때문에 기관을 조사한 후, 조사대상을 추정한 후, 표본을 추출하도록 함
 - 이는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 명부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이지만, 명부를 이용하여 조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장애예술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구분	기관/협회/단체 모집단	조사 표본
장애인 복지관	235	18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22	237
장애인 거주시설	585	19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575	186
보호작업장	11	7
자립지원센터	1	1
장애인단체	32	23
장애인문화예술단체	148	106
총합계	2,119	944

17

4. 조사 모집단

II. 조사 개요

2) 장애 예술인, 장애인 예술 활동가 모집단

[장애 예술인- 5,972명]

(단위: 명)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서양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합계
장애 유형															
합계	1,075	1,031	246	27	-	2,290	188	317	251	155	62	3	-	327	5,972
지체장애	469	214	76	14	-	351	46	32	35	17	3	-	-	137	1,395
시각장애	13	31	5	-	-	225	41	58	10	8	-	-	-	20	411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56	31	5	-	-	28	2	5	16	-	3	-	-	1	147
지적장애	328	480	104	7	-	1,013	73	133	155	96	40	-	-	128	2,557
자폐성장애	42	141	16	-	-	559	17	28	11	5	-	3	-	39	861
뇌병변장애	102	99	8	6	-	70	5	14	18	23	13	-	-	2	361
기타	65	35	32	-	-	44	3	46	7	5	3	-	-	-	241

[장애 예술 활동가 - 25,722(35,871명)]

(중복 응답, 단위: 명)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서양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합계
장애 유형															
합계	1,230	6,675	5,017	969	95	7,886	4,619	2,171	2,324	1,363	1,726	87	49	1,659	25,722
지체장애	383	701	697	78	-	835	536	316	59	214	245	20	1	251	4,334
시각장애	39	58	130	6	-	1,113	474	492	655	307	32	1	1	38	3,348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7	187	160	31	-	243	32	67	28	20	5	7	1	36	824
지적장애	582	4,599	3,371	604	79	4,247	2,830	1,009	1,386	671	1,067	44	1	1,111	21,602
자폐성장애	120	606	371	128	16	692	198	144	95	99	150	6	26	107	2,758
뇌병변장애	71	414	153	99	-	513	421	93	50	38	211	3	4	83	2,153
기타	28	111	136	23	-	244	128	50	51	14	16	6	15	33	852

18

5. 조사 방법 및 내용

II.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19년 3월 25일 ~ 5월 3일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방법	방문 면접조사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조사 대상	장애 예술인 416명, 장애인 예술 활동가 584명

2)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개인의 예술활동	현재 활동 분야에의 입문 경로
	활동 형태 (가장 중심이 되는 형태)
	활동 중인 문화예술분야의 온라인 활동 여부 및 활동 횟수, 목적
	최근 3년의 예술활동 경력 - 발표, 전시, 수상, 비평/평론, 저작권 취득 등
예술 창작여건	문화예술활동 관련 작업 공간 보유 여부 및 보유 형태
	문화예술활동에 가장 필요한 공간
	문화예술활동 발표 기회가 충분하진 여부
	문화예술활동 창작/발표기회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것
	문화예술활동 발표 공간 이용에 어려운 점

19

5. 조사 방법 및 내용

II.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단체 및 작품/교류활동	문화예술활동 관련 단체 가입 여부
	문화예술활동 관련 단체 가입 이유/가입하지 않은 이유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보조금 필요 여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예술 창작활동 시 큐레이터/디렉터의 도움 여부
	현재 활동중인 예술활동 관련 전문교육 이수 여부, 종류, 비용부담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전문적인 예술교육의 필요성
예술인 지원사업 수혜 및 정책 인식	장애 예술인들의 전문적인 예술활동 관련 어려움
	지난 3년간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후원을 받았는지 여부 및 내용
	장애 예술인 정책 및 인식
	장애 예술인 및 주요 문화예술 정책 중요성
	장애 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정책 만족도
	장애 예술에 필요한 지원
문화향유 실태	예술 창작활동 협업 경험 (비장애 예술인, 국제교류, 타 분야와의 협업)
	지난 1년간 문학/공연/시각/전통 장르 문화예술 관람 경험
	지난 1년간 관람한 문화예술 행사 및 횟수
응답자 정보	문화예술 행사 참여에서의 어려움
	연령, 거주지, 장애유형, 장애발생시기, 주 활동 분야 및 활동 기간, 예술활동증명 등록 여부, 성별, 최종 학력, 고용 형태, 예술활동 주입 여부, 소득, 가구소득

20

6. 응답자 특성

II. 조사 개요

| 장애 예술인

	(단위 : %)	비율
장애 유형	지체장애	23.1
	시각장애	8.9
	청각/언어장애	4.8
	지적장애	35.1
	자폐성장애	13.9
	뇌병변장애	10.1
	기타	4.1
주 활동 분야	문학	7.0
	미술	11.1
	공예	6.3
	사진	2.6
	서양음악	25.7
	대중음악	13.9
	국악	13.0
	무용	10.3
	연극	4.8
	기타	5.3

| 장애인 예술 활동가

	(단위 : %)	비율
장애 유형	지체장애	25.0
	시각장애	7.0
	청각/언어장애	3.9
	지적장애	41.3
	자폐성장애	9.2
	뇌병변장애	9.6
	기타	3.9
주 활동 분야	문학	7.4
	미술	18.0
	공예	20.5
	사진	4.3
	서양음악	10.6
	대중음악	15.6
	국악	9.1
	무용	5.1
	연극	3.9
	기타	5.5

21

7. 수행 프로세스

II. 조사 개요

추진체계	주요 내용
조사설계 및 방향 설정	조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조사방향 설정
사례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장애 예술인 개념 도출 - 장애유형 및 예술 분야 세부 분류 기준 마련
모집단 구축	- 장애 예술인 및 장애 예술 활동가 현황 파악을 위한 기관협회/단체 조사를 통해 모집단 구축 - 표본조사를 위한 조사 리스트 확보
정량조사 실시	- 모집단 특성에 대한 분석 후, 장애유형, 예술분야 변수를 사용하여 표본설계 실시 -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회의를 수렴하여 최종 조사표 확정 -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 면접원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면접조사 진행
정성조사 실시	정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룹 특성을 선정하고 총 5개 그룹의 심층조사(FGI) 진행
결과 분석	- 조사문항별 응답 결과 기초분석 실시 - 장애유형, 예술분야, 성별, 연령별 등 특성별 분석 실시 - 정책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여 심층분석 실시
결론 및 제언사항 도출	- 정량조사, 정성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론 제시 - 시사점 및 제언사항 도출

22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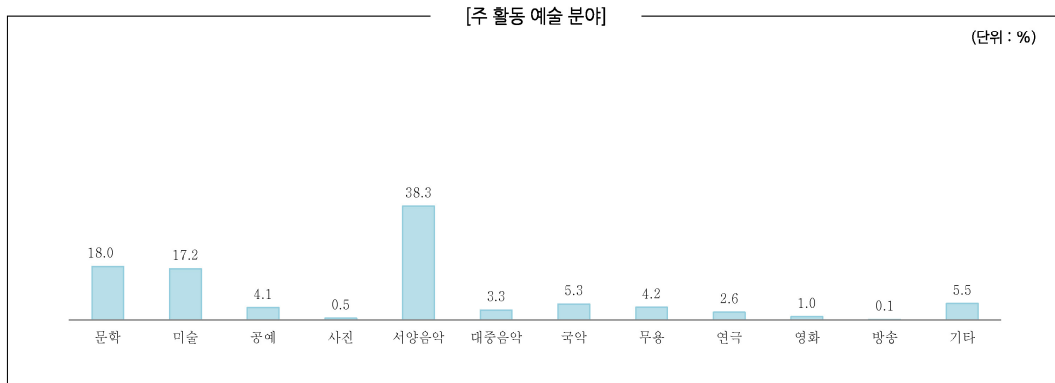
1. 예술 활동 현황
2. 협업 및 교류 경험
3.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4. 장애 예술인 교육
5. 문화향유 실태

1. 예술 활동 현황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1-1) 주 활동 예술 분야 – 장애 예술인 전체

- 응답자의 38.3%가 서양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며, 18.0%는 문학 분야, 17.2%가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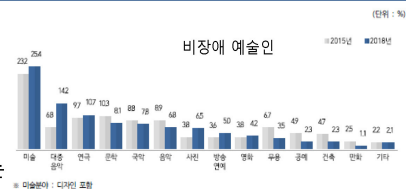
1. 예술 활동 현황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1-2) 주 활동 예술 분야 – 장애 유형별

- 장애 유형별 활동 예술 분야 분포에 차이가 나타남

- 지체장애의 경우 문학(32.7%) 및 서양음악(24.3%)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많았으며, 시각장애 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서양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됨(53.8%)
- 청각/언어장애와 뇌병변장애에서는 문학 분야(각 36.7%, 27.7%)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에서는 서양음악(각 38.5%, 69.0%) 분야 예술인이 가장 많았음



(단위 :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서양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기타
전 체	18.0	17.2	4.1	0.5	38.3	3.3	5.3	4.2	2.6	5.5
장애 유형	지체장애	32.7	14.9	5.6	1.0	24.3	3.2	2.7	2.6	11.8
	시각장애	32	7.5	1.3	0.0	53.8	10.0	16.4	0.0	5.7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36.7	20.1	3.2	2.0	18.2	2.9	4.2	10.8	1.9
	지적장애	12.5	18.3	4.2	0.3	38.5	2.8	6.0	6.2	7.4
	자폐성장애	5.2	17.5	0.0	0.3	69.0	2.1	4.1	1.4	0.0
	뇌병변장애	27.7	26.7	2.3	1.7	18.9	2.1	4.6	5.1	4.2
	기타	34.2	18.1	17.6	0.0	22.9	3.1	0.0	4.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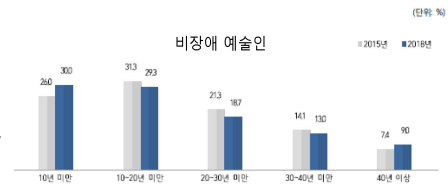
25

1. 예술 활동 현황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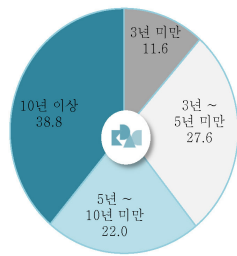
2) 예술 활동 기간

- 장애 예술인의 경우 평균 활동 기간이 7.6년으로 조사되었음
-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 예술인의 평균 활동 기간이 8.7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뇌병변장애 예술인의 활동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됨(평균 6.6년)



[예술 활동 기간]

(단위: %)



평균 : 7.6년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	%	%	%	년
전 체		11.6	27.6	22.0	38.8	7.6
장애 유형	지체장애	9.6	27.6	15.4	47.4	8.7
	시각장애	5.4	10.8	43.8	40.0	8.7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4.1	16.5	27.6	51.9	8.1
	지적장애	15.6	32.7	17.7	34.0	7.0
	자폐성장애	4.8	24.8	28.2	42.2	7.7
	뇌병변장애	9.1	21.9	40.8	28.1	6.6
	기타	22.9	28.5	15.9	32.8	7.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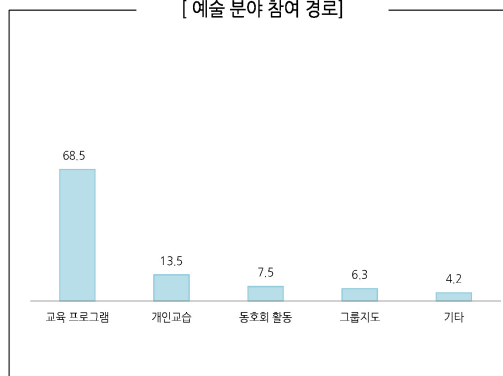
1. 예술 활동 현황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3) 예술 분야 참여 경로

-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에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교육 프로그램(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포함)'이라고 응답함(68.5%)
- 자폐성장애 예술인(38.8%)과 지적장애 예술인(14.5%)은 '개인교습'을 통해 예술 분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진 분야에서는 '동호회 활동'(30.0%), 서양음악 분야에서는 '개인교습'(27.1%), 무용 분야에서는 '그룹지도'(27.7%)를 통해 예술 분야에 참여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예술 분야 참여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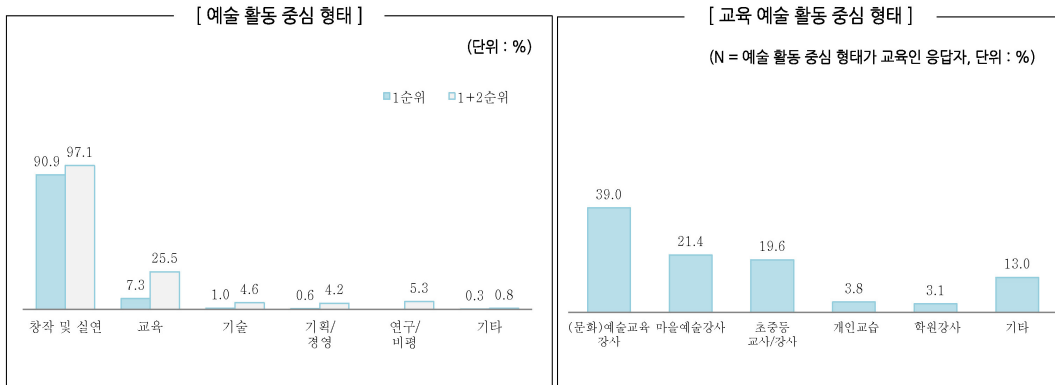
27

1. 예술 활동 현황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4) 예술 활동 중심 형태

- 예술활동을 할 때 대부분의 응답자가 '창작 및 실연'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하였으며(90.9%), 다음으로는 교육(7.3%)이 뒤를 이음 (1순위 기준)
- 주로 '교육'을 중심으로 예술활동을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교육 강사'로 활동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39.0%), 다음으로 '마을예술강사'(21.4%), 초중등 교사/강사(19.6%)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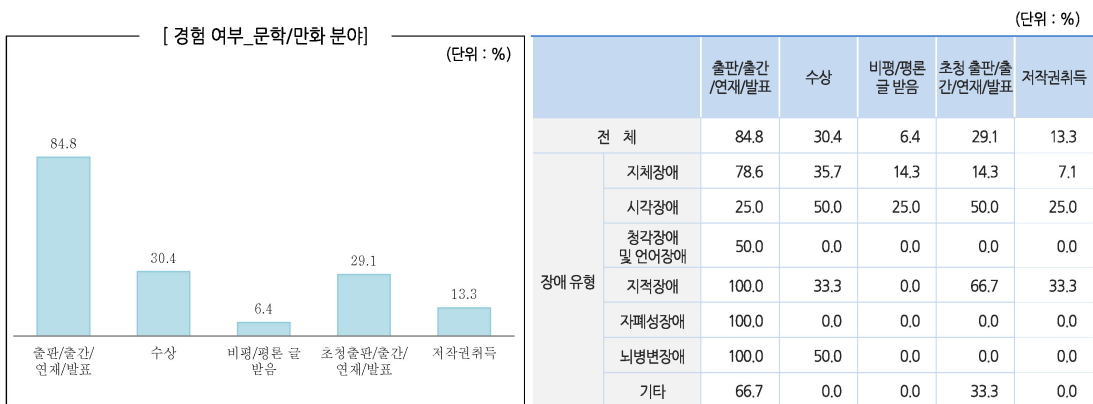
28

1. 예술 활동 현황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5-1) 예술 활동 경력 - 문학/만화 분야

- 대부분의 응답자가 '출판/출간/연재/발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84.8%), '수상 경험'은 30.4%, '비평/평론 글을 받은 경험'은 6.4%, '초청받아 출판/출간/연재/발표 경험'은 29.1%, '저작권 취득 경험'은 13.1%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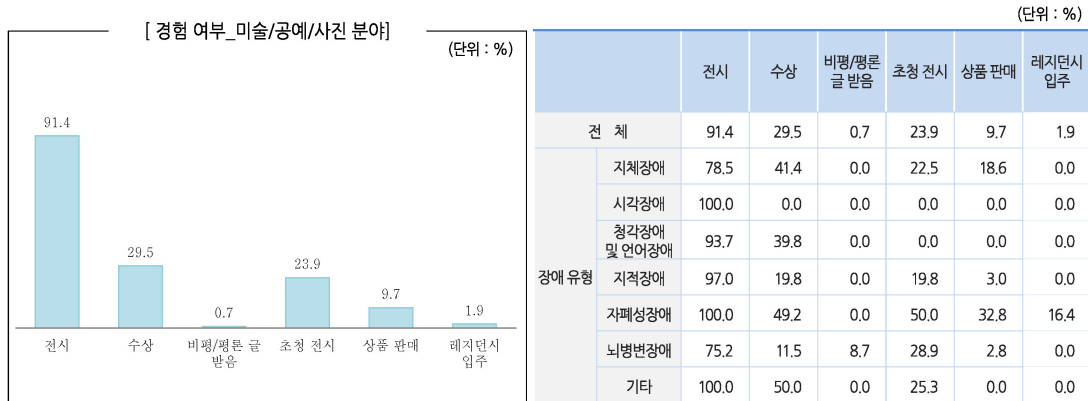
29

1. 예술 활동 현황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5-2) 예술 활동 경력 - 미술/공예/사진 분야

- 응답자의 91.4%가 '전시' 경험이 있었으며, '수상 경험'은 29.5%, '비평/평론 글을 받은 경험'은 0.7%, '초청 전시 경험'은 23.9%, '상품 판매 경험'은 9.7%, '레지던시 입주 경험'은 1.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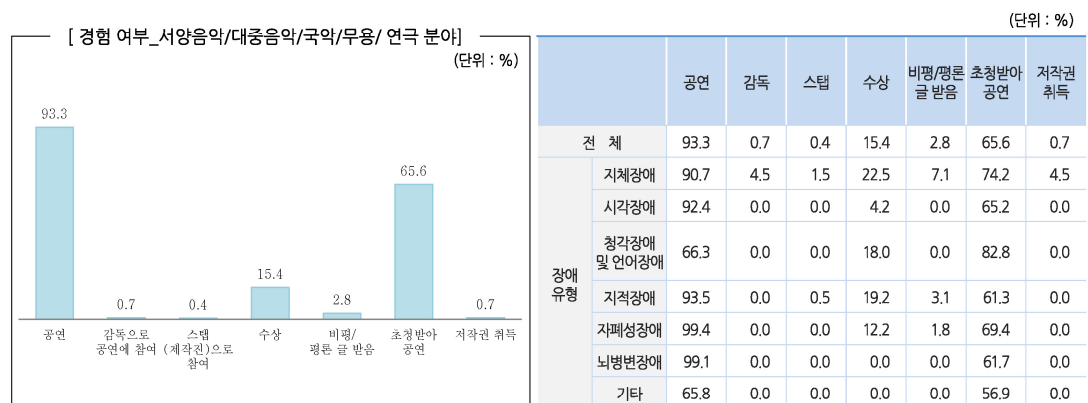
30

1. 예술 활동 현황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5-3) 예술 활동 경력 - 서양음악/대중음악/국악/무용/연극 분야

- 응답자의 93.3%가 '공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감독으로 공연에 참여한 경험'은 0.7%, '스텝으로 참여한 경험'은 0.4%, '수상 경험'은 15.4%, '비평/평론 글 받은 경험'은 2.8%, '초청받아 공연'은 65.6%, '저작권 취득 경험'은 0.7%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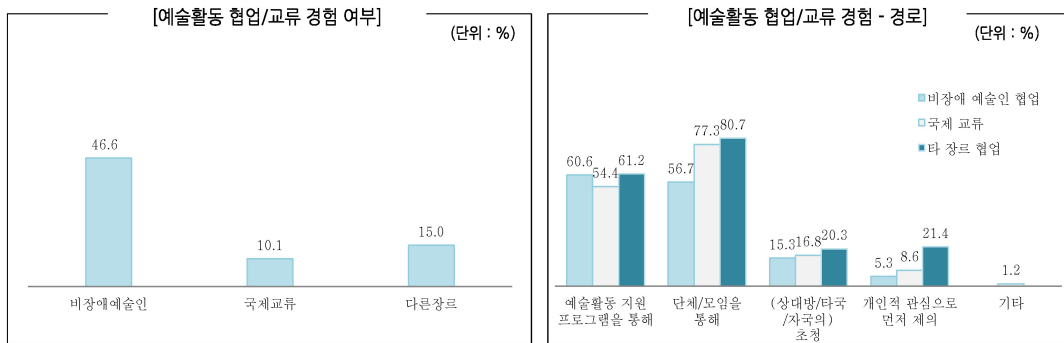
31

2. 협업 및 교류 경험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예술활동 협업 및 교류 경험

- 응답자의 대략 절반 정도는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교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46.6%), 국제교류 경험은 10.1%, 타 분야(장르)와의 협업 경험은 15.0%로 나타남
-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은 '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60.6%) 또는 '단체/모임'(56.7%)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제교류(77.3%) 및 타 분야(장르)와의 협업(80.7%)은 '단체/모임'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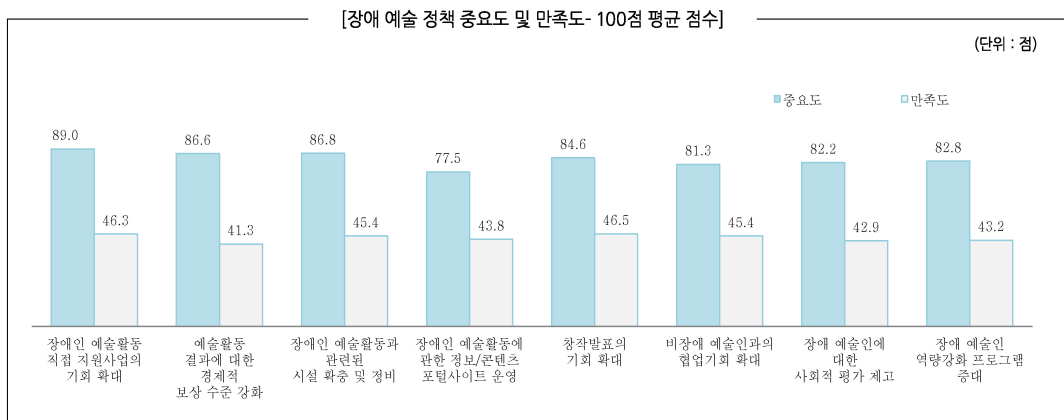
32

3.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1-1) 장애 예술 정책 인식 - 전체

- 8개의 장애 예술 관련 정책에 대해 대부분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장애인 예술활동에 관한 정보와 콘텐츠가 있는 포털사이트 운영'의 중요성은 다른 정책에 비하여 낮게 평가됨(평균 77.5점)



33

3.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1-2) 장애 예술 정책 인식 - 장애 유형별

-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장애에서 상대적으로 정책 만족도가 높음
- 뇌병변장애에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단위 : 점)

	장애인 예술활동 직접 지원사업의 기회 확대	예술활동 결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 강 화	장애인 예술활동 관련 시설 확충 및 정비	장애인 예술활동 관련 정보/콘텐츠 포 털사이트 운영	창작발표의 기회 확대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기회 확대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제고	장애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증대
전 체	46.3	41.3	45.4	43.8	46.5	45.4	42.9	43.2
장애 유형	지체장애	49.0	43.7	48.9	48.7	46.1	44.9	46.4
	시각장애	48.6	43.5	44.5	40.6	54.3	46.4	46.1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57.7	59.6	59.0	61.9	60.5	57.9	53.9
	지적장애	47.3	40.8	45.1	40.7	42.6	43.2	41.8
	자폐성장애	43.2	39.2	44.5	45.5	51.2	48.5	42.4
	뇌병변장애	35.2	35.5	39.5	39.4	52.2	49.4	42.3
	기타	38.1	34.8	32.7	41.6	41.4	40.1	33.1

34

3.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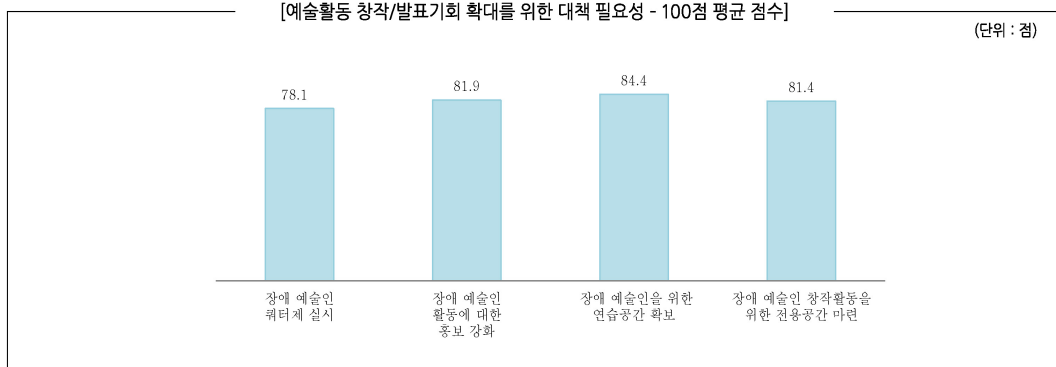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2) 예술활동 창작/발표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성

- 예술활동 창작/발표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성 문항에 대해 장애 예술인을 위한 연습공간 확보 84.4점, 장애 예술인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81.9점,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 81.4점, 장애 예술인 쿼터제 실시 78.1점 순으로 나타남

[예술활동 창작/발표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성 - 100점 평균 점수]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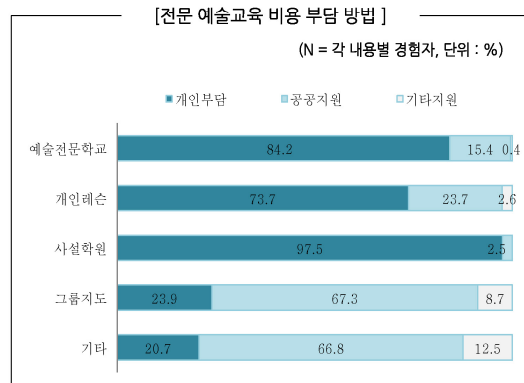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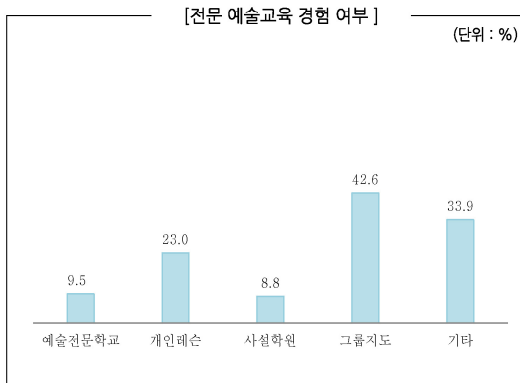
35

4. 장애 예술인 교육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1) 전문 예술교육 경험

- '그룹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42.6%로 가장 많았음
- 예술전문학교, 개인레슨, 사설학원의 경우 대부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그룹지도 및 기타 교육은 공공지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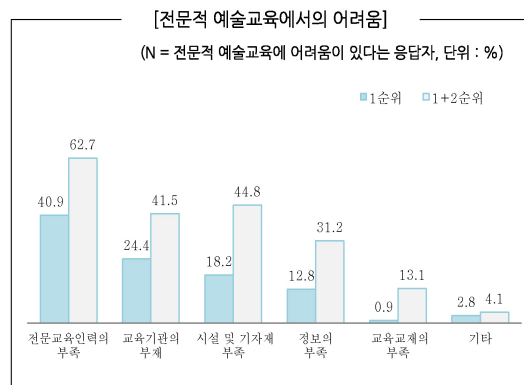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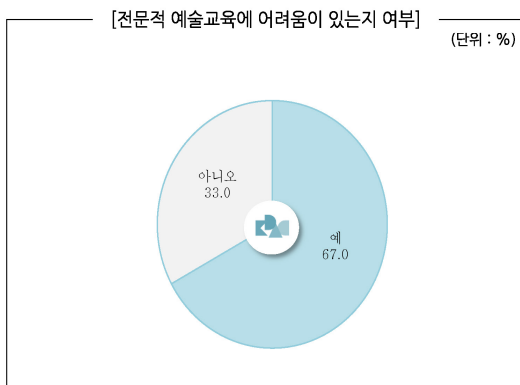
36

4. 장애 예술인 교육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2) 장애 예술인들의 전문적인 예술교육 관련 어려움

- 응답자의 67.0%가 장애 예술인들의 전문적인 예술교육 관련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함
- 구체적인 어려움 내용에 관련하여, '전문 교육 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기관의 부재'가 24.4%로 나타남(1순위 기준)



37

5. 문화향유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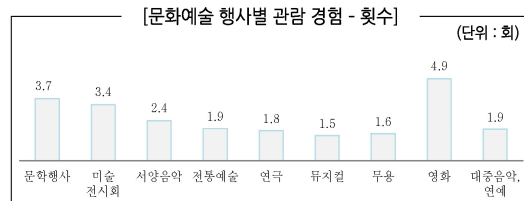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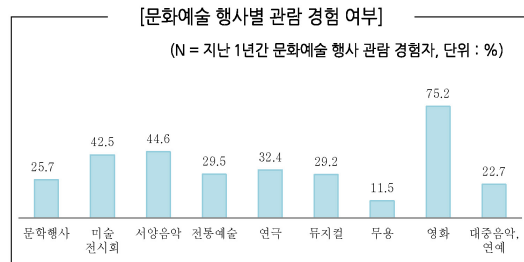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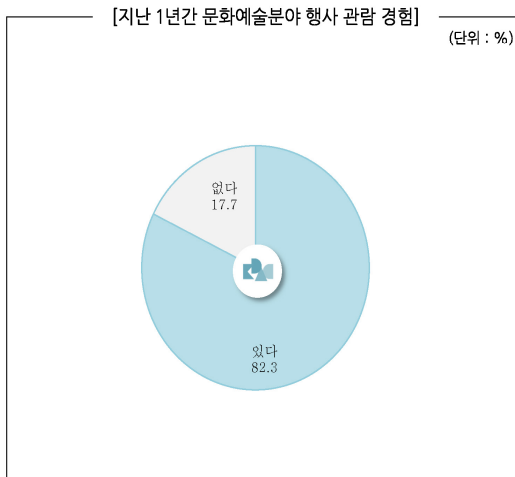
III. 실태조사(장애 예술인) 주요 결과

1) 지난 1년간 문화예술분야 행사 관람 경험

- 문화예술 행사 관람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2.3%로 나타남
- 행사별 관람 경험은 영화를 관람한 경험이 7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양음악(44.6%), 미술 전시회(42.5%) 순이었음
- 평균적인 문화예술 행사 관람 횟수는 영화가 4.9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문학행사(평균 3.7회), 미술 전시회(평균 3.7회) 순이었음

비장애 예술인

문화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연예
5.2	11.8	4.7	4.9	6.2	4.3	2.8	13.3	6.1



38

IV. FGI 주요 결과

- 개요
- 주요 결과
- 장애 유형별 주요 결과
- 예술 분야별 주요 결과

1. 개요

IV. FGI 주요 결과

| 조사 대상 및 방법

- 장애 예술인 중 3년 이상 예술 활동을 한 자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령, 예술분야,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모집함
- 기관 조사를 통한 장애 예술인 분포를 기준으로 만화, 건축 분야는 제외함

구분	주요 내용		
조사시간	• 2019년 5월 2일 ~ 5월 3일		
자료수집도구	• 인터뷰 가이드라인		
조사방법	• 표적 집단 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FGI)		
조사대상	GROUP1	시각/지체/뇌병변 장애 예술인	-
	GROUP2	시각/지체/뇌병변 장애 예술인	-
	GROUP3	청각/언어 장애 예술인	수어로 진행
	GROUP4	지적/자폐성 장애 예술인	대리인 및 보호자 동행
	GROUP5	지적/자폐성 장애 예술인	대리인 및 보호자 동행

40

2. 주요 결과

IV. FGI 주요 결과

- 선행연구 검토, 현황 분석을 통해 장애 예술 분야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5가지 영역을 선정함
- 장애 예술인 전반에 관한 사항, 포용적 예술에 대한 인식,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장애 예술인 교육, 문화/예술 향유 경험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현재 장애 예술인은 예술활동에 있어 만족보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경제적, 교육적 측면에 지원을 요구함

구분	주요 내용	
1	장애 예술인 전반에 관한 사항	• 예술활동의 경제적 부담과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의 불충분함 • 비장애 예술과의 감성의 차이 존재 • 이동의 제한과 소통의 어려움
2	포용적 예술에 대한 인식	• 예술활동이 장애 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비장애 예술인과 동등하게 인정되길 바람 • 협업 당사자 간의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역효과
3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 장애 예술 지원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의 제한과 절차적 복잡성 • 매개자(수어통역사, 퍼실리테이터 등)에 대한 필요성 • 청년층지원정책, 예술활동 일자리 연계 등의 지원을 통한 자립적 환경조성 •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일원화한 정보시스템 필요
4	장애 예술인 교육	• 기존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 필요(균등한 장애 예술 교육 기회 제공) • 각 장애유형에 따른 단계별 교육체계 및 로드맵 필요
5	문화, 예술분야 향유 경험	• 문화, 예술 분야 향유 경험이 예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문제 • 예술 공연/전시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공연/전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도구의 필요성 • 각 장애유형의 눈높이 맞춘 향유 및 관람 체계 필요

41

3. 장애 유형별 주요 결과

IV. FGI 주요 결과

-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문화/예술 향유 및 관람 시 각 장애 유형별 향유 및 관람 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지체/뇌병변 장애 예술인은 창작 발표공간과 이동권 문제, 시각 장애 예술인은 보조도구의 부족 문제, 청각/언어 장애 예술인은 매개자 양성 및 지원의 문제, 지적/자폐성 장애 예술인은 장애 예술의 전문적인 교육체계 및 로드맵의 필요에 보다 강조점을 두었음

구분	주요 내용
지체/뇌병변	• 예술활동에 있어 경제적 부담과 창작 발표공간 이용의 어려움 • 장애 예술에 국한되지 않은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지향 • 장애 예술 지원사업 관련 절차적 복잡성과 매개자(facilitator)의 지원 및 발굴 필요 • 예술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의 제도적 지원 필요 • 문화·예술 향유 및 관람 시 자리선택권이 없고, 접근성, 이동성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미비
시각	•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도구의 부족과 장애 예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 •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은 긍정적인(예술적 부분) 혹은 부정적인(장애 예술이 비장애 예술보다 예술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 면 모두 존재 • 장애 예술에 대한 금전적 지원 필요 • 장애 유형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정보제공 등 필요(ex.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을 해설해주는 사람, 점자배열 시스템, 전화안내서비스 등) • 문화·예술 향유 및 관람 시 이동성의 문제가 있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향유 및 관람 체계 필요(ex. 화면해설은 있지만 움직임에 대한 해설은 없음)
청각/언어	• 아이디어와 전달의 한계/소통 부족과 매개자(수어통역사)의 비용 부담 • 매개자의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협업자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존재 • 단발성, 기금 지원보다 다양한 방식의 장기적 지원 필요, 정보 접근성 제한 • 분야별 전문화된 수어통역사 양성 필요, 창작 및 표현 위주의 예술교육 분위기 • 문화·예술 향유 및 관람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향유 및 관람 체계 필요(ex. 해설사의 경우, 오디오 지원만 있는데 시각적 시스템 필요)
지적/자폐성	• 예술활동에 있어 경제적 부담과 발표기회의 부족 •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은 긍정적인(예술적 부분) 혹은 부정적인(소통의 어려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진행) 점 모두 존재 • 정보 접근성 제한 및 부족과 청년층지원정책도 필요 • 단계별 전문화된 장애 예술 교육체계 및 로드맵 필요 • 문화·예술 향유 및 관람 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향유 및 관람 체계 필요(ex. 다양한 관람방법 제안, 해설사의 경우 쉬운 설명 필요)

42

4. 예술 분야별 주요 결과

IV. FGI 주요 결과

- 예술 분야와 상관없이 예술활동에 있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함
- 미술 분야는 매개자와 예술활동 보조인력 부족, (서양, 대중) 음악 분야와 무용 분야는 창작 연습공간 부족의 문제에 보다 큰 강조점을 두었음

구분	주요 내용
문학	• 예술활동에 있어 경제적 지원 필요와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 •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은 예술적 이해도가 높아 긍정적이었음 • 예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필요
미술	• 예술활동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 예술인 전문 예술교육 프로그램 부족 •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은 긍정/부정적인 점 모두 존재 • 매개자와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 부족, 정보 접근성의 제한 • 창작표현 위주, 분야별 연계 교육 프로그램 필요
서양음악	• 예술활동에 있어 경제적 지원 필요와 연습공간 부족/ 발표공간 이용 어려움 •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은 긍정/부정적인 점 모두 존재 • 예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 필요
대중음악	• 예술활동에 있어 경제적 지원 필요와 창작 연습공간 부족 •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은 긍정/부정적인 점 모두 존재 • 예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 필요
무용	• 예술활동에 있어 경제적 지원 필요와 창작 연습공간 부족 • 국제교류를 통해 협업할 때, 예술적 부분에서 긍정적이었음
연극	• 예술활동에 있어 경제적 지원 필요와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 •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은 소통 어려움, 불공정한 대우 등으로 부정적이었음 • 문화·예술 향유 및 관람 시 자리선택권이 없음
방송	• 예술활동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

43

V. 결론

1. 조사의 의의
2. 제언

1. 조사의 의의

V. 결론

조사범위
조사대상

- 조사범위(장애 유형, 예술 분야)와 조사대상(장애 예술인, 장애인 예술 활동가)을 정교화하였음

표본설계

- 모집단을 구축(기관/협회/단체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표본설계를 정교화함

다각도 접근
합의도출

- 장애 예술인, 장애인 예술 활동가의 예술 창작 및 문화 향유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를 다각도에서 접근한 후, 장애 유형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합의의 도출 단계를 거침

심층분석

- 정량조사 뿐 아니라 정성조사를 실시하여, 심층적 분석을 시도함

1. 조사의 의의

V. 결론

발달장애인의 예술활동 조명

-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인은 전체 장애 예술인 중 절반 정도인 49%이며, 발달장애 예술활동가는 약 56%로 발달장애인들의 예술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장애인 예술활동 관련 연구가 지체장애, 시각 및 청각장애인 중심으로 조사되었기에 그 동안 관심 받지 못했던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의 예술활동 현황을 발견할 수 있었음

장애인의 예술활동 경로 파악

- 복지관 및 시설의 예술교육프로그램은 치료나 향유의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교육을 받고 예술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정책 수립 시 합리적 결정 가능한 기초자료 마련

- 현재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지닌 장애예술활동가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함으로써 향후 이들을 장애예술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활용 가능
- 국내외적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함.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의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파악 가능하도록 조사하였기 때문에, 정책적 활용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구분할 수 있음

46

1. 조사의 의의

V. 결론

주요 활동 분야 파악이 가능하며 비장애예술인과 현황 비교가 가능함

- 장애유형과 예술 활동 분야별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사하였음
 - 서양음악(38.3%), 문학(18.0%), 미술(17.2%) 분야 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 방송, 사진 등은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문항을 '예술인 실태조사'와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예술 활동조사)'와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첫 조사지만 기준점이 있어 비교를 통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47

2. 제언

V. 결론

발달장애인의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 필요

- 복지관 및 보호자 중심의 근접지원체계를 확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개발과 지원 필요
- 의학, 특수교육, 학자, 예술가간의 학제간 연구개발을 통해 발달장애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기회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개발 필요
-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예술활동을 위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현재 발달장애인들의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부재한 상황임)

전문화된 장애 예술 교육체계 및 로드맵 제시 필요

- 장애 예술인의 경우,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실제 전문 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은 높지 않았고, 과반수 이상이 전문 예술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함
 -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교육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며, 장애인들을 이해하면서 예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 따라서 정책적으로 전문화된 장애 예술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는 '장애'라는 점이 고려된 단계별 로드맵이어야 함

48

2. 제언

V. 결론

매개자(수어통역사 등) 양성 및 지원 필요

- 본 조사에서는 매개자는 디렉터, 큐레이터, 수어통역사, 퍼실리테이터 등 넓은 의미에서 정의함
- 전문가 자문회의, 실태조사, FGI의 결과에서 매개자(수어통역사 등)의 필요성과 수요를 확인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 장애 예술계에서는 그 필요성과 수요는 인정하지만, 지원 정책에 포함되지 있지 않고, 경제적 지원 부족함
-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는 인력과 장애인 등의 예술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함

장애인 예술활동의 직접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향유 측면에서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함께 진행

- 문화·예술 분야 향유 경험이 예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문화시설, 예술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예술공간, 예술 프로그램 등)
- 현재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관람률 및 횟수는 비장애 예술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술의 간접경험도 부족한 상황임
- 향유 측면에서 환경을 개선할 때는, 각 장애 유형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
 - 시각 장애인 : 움직임에 대한 해설, 청각/언어 장애인 : 시각적 효과 시스템 등

49

2. 시사점

V. 결론

장애 예술인과 함께 장애인 예술 활동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필요

- 현재 장애 예술인에 대한 공통 기준, 각 분야별 세부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본 조사에서는 장애 예술인의 공통 기준 5가지를 도출함
 - 5가지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 할 경우 장애 예술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향후 장애 예술인이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예술 활동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본 조사는 장애 예술인과 장애인 예술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조사로 2018년 기준 조사는 표본수 등에서 한계점이 있음
 - 향후 표본 수 확대, 장애 예술인/장애인 예술 활동가 특성 문항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함
- 향후 조사는 2~3년 주기로 조사가 이뤄짐으로써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0

E.O.D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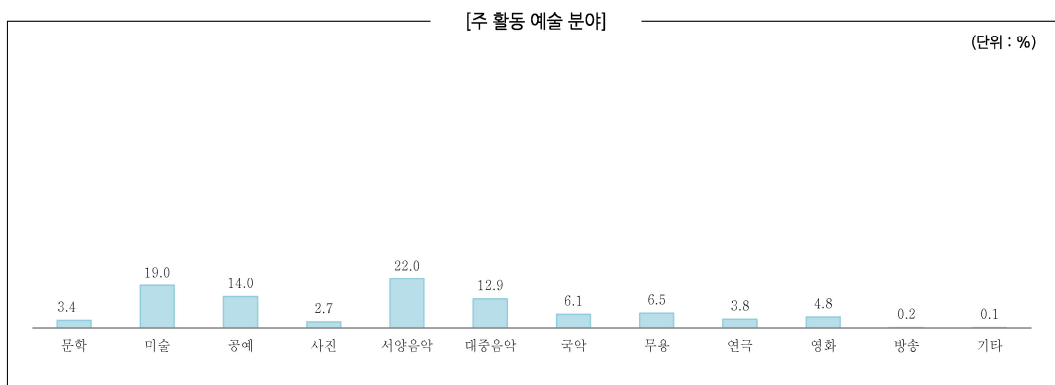
1. 예술 활동 현황
2. 협업 및 교류 경험
3.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4. 장애 예술인 교육
5. 문화향유 실태

1. 예술 활동 현황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1-1) 주 활동 예술 분야 - 장애인 예술 활동가 전체

- 응답자의 22.0%가 서양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며, 19.0%는 미술 분야, 14.0%가 공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1. 예술 활동 현황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1-2) 주 활동 예술 분야 - 장애 유형별

- 장애 유형별 활동 예술 분야 분포에 차이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 서양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이외에, 시각장애의 경우 무용(21.8%) 분야 활동가가 많았으며, 청각/언어장애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에서는 미술분야 활동가가 상대적으로 많았음(각 22.9%, 20.9%, 24.0%)
- 뇌병변장애의 경우 대중음악 분야와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응답자가 각 21.4%, 21.3%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단위 :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서양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전 체	3.4	19.0	14.0	2.7	22.0	12.9	6.1	6.5	3.8	4.8	0.2	0.1	4.3
장애 유형													
지체장애	9.5	18.5	15.5	1.7	18.1	11.7	6.8	1.3	6.9	6.5	0.6	0.0	2.9
시각장애	1.5	2.0	4.5	0.0	37.5	16.1	16.5	21.8	0.0	0.0	0.0	0.0	0.0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1.0	22.9	19.7	4.1	29.0	4.0	7.9	3.3	3.5	0.0	0.0	0.0	4.7
지적장애	3.0	20.9	15.4	2.7	18.9	12.7	4.5	6.1	4.4	5.8	0.3	0.0	5.3
자폐성장애	0.0	24.0	14.7	5.1	26.7	7.7	5.6	3.6	0.1	7.1	0.0	1.0	4.5
뇌병변장애	4.1	21.3	7.9	5.1	25.7	21.4	4.6	2.5	2.8	0.0	0.0	0.2	4.5
기타	3.9	13.6	17.0	3.0	29.8	16.2	6.1	6.1	2.5	0.0	0.0	1.9	0.0

54

1. 예술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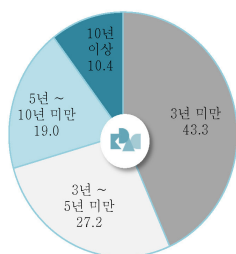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2) 예술 활동 기간

- 장애인 예술활동가의 경우 평균 활동 기간이 4.1년으로 조사되었음
- 시각장애 예술활동가의 평균 활동 기간이 6.3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청각/언어장애 예술활동가의 활동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됨(평균 2.1년)

[예술 활동 기간]

(단위 :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	%	%	%	년
전 체	43.3	27.2	19.0	10.4	4.1
장애 유형					
지체장애	51.3	23.0	18.1	7.6	3.6
시각장애	39.2	18.5	24.1	18.2	6.3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84.1	1.6	13.9	0.4	2.1
지적장애	42.2	28.6	19.6	9.6	3.9
자폐성장애	26.9	44.4	18.9	9.8	4.1
뇌병변장애	47.3	16.2	16.5	20.0	4.7
기타	50.2	45.2	2.0	2.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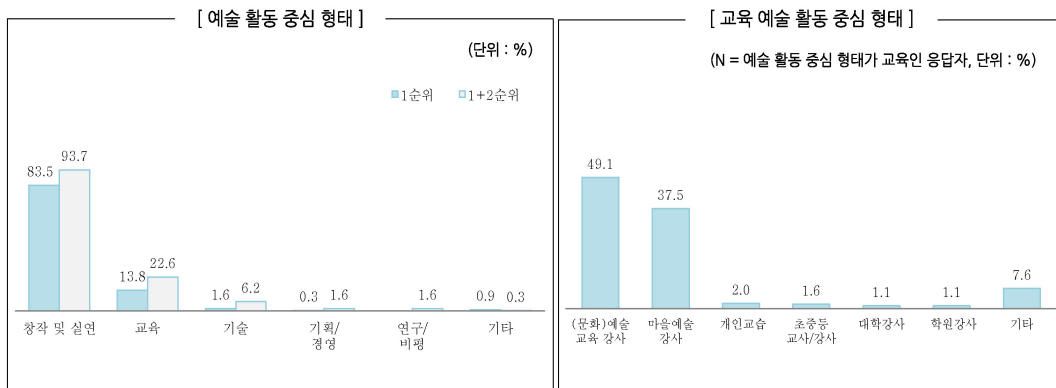
55

1. 예술 활동 현황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3) 예술 활동 중심 형태

- 예술활동을 할 때 대부분의 응답자가 '창작 및 실연'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하였으며(83.5%), 다음으로는 교육(13.8%)이 뒤를 이음 (1순위 기준)
- 주로 '교육'을 중심으로 예술활동을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교육 강사'로 활동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49.1%), 그 다음으로는 '마을예술강사'(37.5%)라는 응답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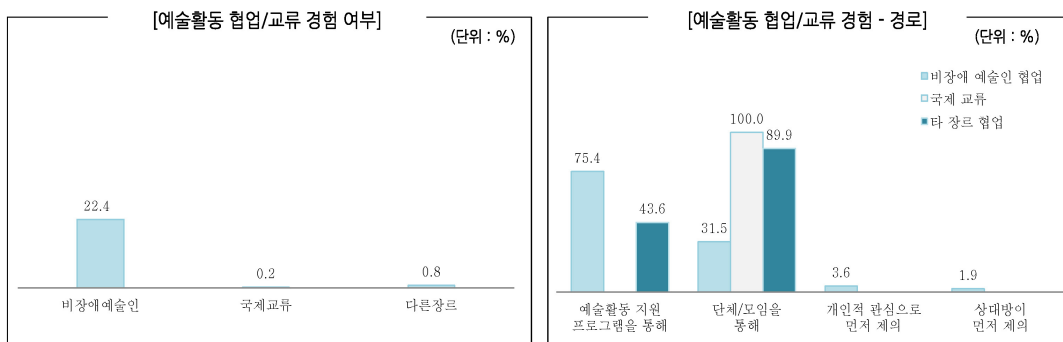
56

2. 협업 및 교류 경험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1) 예술활동 협업 및 교류 경험

-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교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2.4%로 나타났으며, 국제교류 경험은 0.2%, 타 분야(장르)와의 협업 경험은 0.8%로 나타남
-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은 대부분 '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75.4%)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제교류(100.0%) 및 타 분야(장르)와의 협업(89.9%)은 '단체/모임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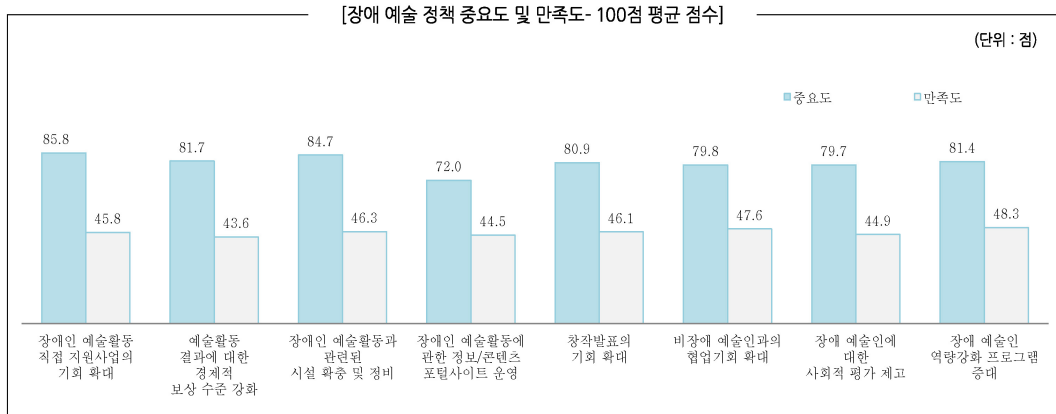
57

3.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1-1) 장애 예술 정책 인식 - 전체

- 8개의 장애 예술 관련 정책에 대해 대부분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장애인 예술활동에 관한 정보와 콘텐츠가 있는 포털사이트 운영'의 중요성은 다른 정책에 비하여 낮게 평가됨(평균 72.0점)



58

3.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1-2) 장애 예술 정책 인식 - 장애 유형별

-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장애에서 상대적으로 정책 만족도가 높음
- 자폐성장애 및 뇌병변장애에서 정책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단위 : 점)

	장애인 예술활동 직접 지원사업의 기회 확대	예술활동 결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 강화	장애인 예술활동 관련 시설 확충 및 정비	장애인 예술활동 관련 정보/콘텐츠 포털사이트 운영	창작발표의 기회 확대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 기회 확대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제고	장애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증대
전 체	45.8	43.6	46.3	44.5	46.1	47.6	44.9	48.3
장애 유형	지체장애	50.0	48.5	51.4	50.8	48.7	49.2	51.3
	시각장애	45.2	41.0	45.2	44.4	52.1	47.3	48.8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58.4	57.7	52.8	48.3	57.7	54.8	58.2
	지적장애	45.5	42.9	44.9	42.4	44.2	47.5	47.6
	자폐성장애	41.5	40.4	43.1	44.4	42.5	42.9	44.5
	뇌병변장애	38.3	41.9	49.7	46.9	46.6	48.8	46.5
	기타	57.2	47.1	54.1	57.4	56.7	49.2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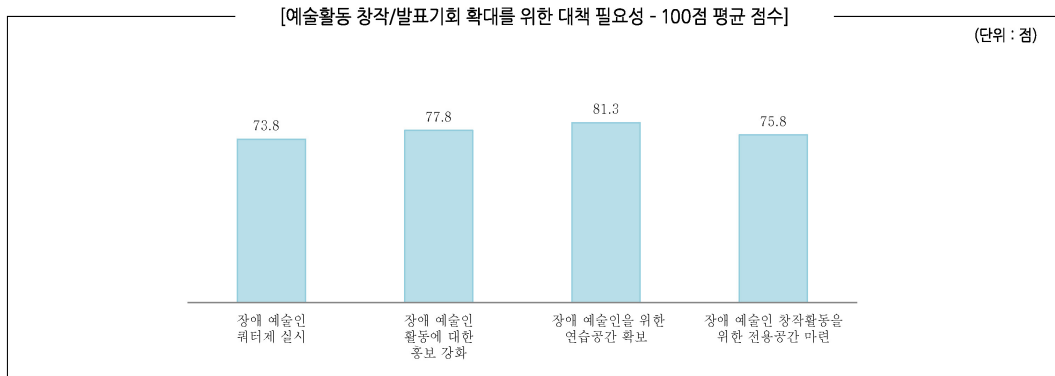
59

3. 장애인 예술 지원 정책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2) 예술활동 창작/발표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성

- 예술활동 창작/발표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성 문항에 대해 장애 예술인을 위한 연습공간 확보 81.3점, 장애 예술인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77.8점,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 75.8점, 장애 예술인 쿼터제 실시 73.8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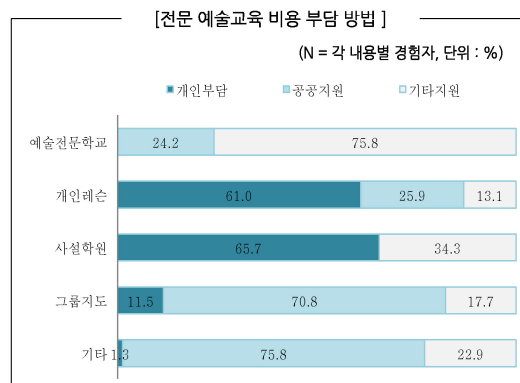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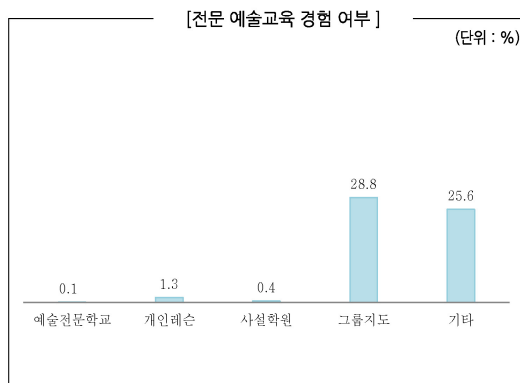
60

4. 장애 예술인 교육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1) 전문 예술교육 경험

- '그룹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28.8%로 가장 많았음
- 예술전문학교의 경우 '기타지원'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응답이 75.8%로 많았으며, 개인레슨 및 사설학원은 대부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룹지도 및 기타 교육은 공공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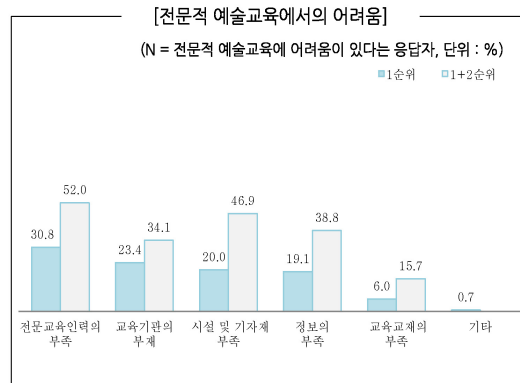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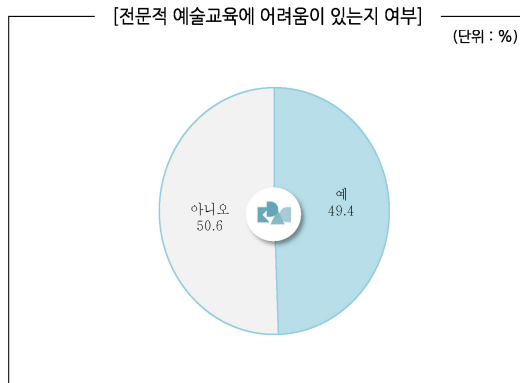
61

4. 장애 예술인 교육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2) 장애 예술인들의 전문적인 예술교육 관련 어려움

- 응답자의 49.4%가 장애 예술인들의 전문적인 예술교육 관련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함
- 구체적인 어려움 내용에 관련하여, '전문 교육 인력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기관의 부재'가 23.4%로 나타남(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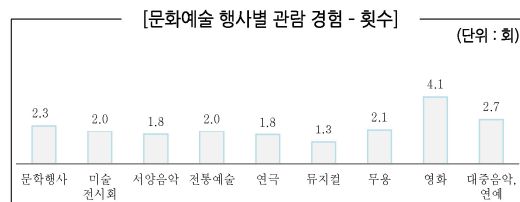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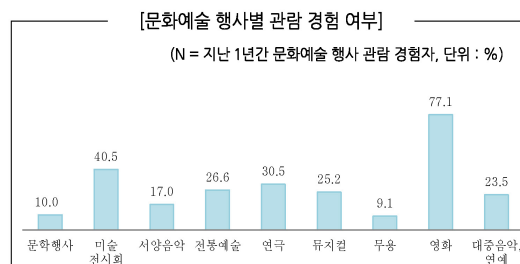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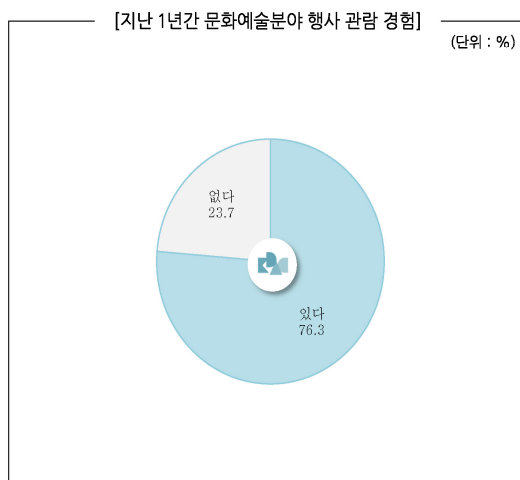
62

5. 문화향유 실태

붙임. 실태조사(장애인 예술 활동가) 주요 결과

1) 지난 1년간 문화예술분야 행사 관람 경험

- 문화예술 행사 관람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6.3%로 나타남
- 행사별 관람 경험은 영화를 관람한 경험이 7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술 전시회(40.5%), 연극(30.5%) 순이었음
- 평균적인 문화예술 행사 관람 횟수는 영화가 4.1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중음악, 연예(평균 2.7회) 순이었음



63

발제 02

장애예술 활성화 방안 제언

백령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장애인 예술 활성화 방안

백령

목 차

1. 사회의 변화와 문화복지
2. 예술과 예술 세계
3. 장애 예술의 개념과 변화
4. 국내 장애예술
5. 지원방향

1. 사회의 변화와 문화 복지

3

1. 사회 변화와 문화 복지

문화의 세기, 공유 경제, 공감의 세기, 인문학 정신, 4차 산업, AI 혁명

인간다운 삶 영위
삶의 질 제고
인간성

소통, 협업, 네트워크, 창의성, 지역과 삶(문화)의 다양성,
미디어 문해력, 일상의 디자인 (선택과 조직)적 접근, 참여

4

1. 사회 변화와 문화 복지

문화의 변화

문화의 민주화	문화 민주주의
문화의 단일성	문화의 다양성
기관(제도) 중심	비공식, 비전문가 조직
기회의 기성화	역동적 활성화
틀(구조)	활동중심
전문가 중심	아마추어 중심
미학적 질	사회적 동등성
보존	변화
전통	개발과 역동성
향상	개별 활동
생산물	과정

5

1. 사회 변화와 문화 복지

문화복지의 의미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존재의 전체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총체적인 미의 국민복지를 실현
- '삶의 질' 향상
- 복지사회의 개념은 물질적 욕구의 충족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삶의 풍요로움까지 포괄하는 '국민복지'의 개념

국민복지의 개념



6

1. 사회 변화와 문화 복지

문화 복지의 필요성

- 문화예술을 이렇게 하나의 권리로 인정한다면 개인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 수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

문화 복지 정책

- 정책을 통해 치유한다는 생각이 오늘날 문예 정책의 기본관점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주요 대상을 창조 계층인 문화예술인으로부터 향수 계층인 국민 전체로 확대시키는 '문화 민주화'가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
- 문화복지정책의 특징: 접근권(accessibility)과 고유성(excellence)

7

1. 사회 변화와 문화 복지

문화복지 정책의 실현

2000년대 초반까지 추진된 문화복지관련 주요 사업

- 법과제도 재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위원회, 지원문화재단, 보건복지부)
- 지원사업 확대 (함께 누리 사업-문체부, 장애인 향수지원사업-위원회, 장애예술관련 국고지원사업)
- 장애인 전용극장 건립 제안 (도종환 전 장관)
- 서울문화재단 잠실스튜디오 등 지자체주도 지원정책 시작
-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 준비지원사업(20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복지관 지원사업)
- 관련 조례 재정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설립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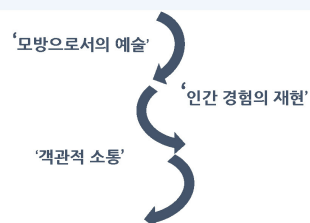
2. 예술과 예술 세계

9

2. 예술과 예술 세계

예술

- 미적 가치가 있는 오브제
- 가치 판단과 연계된 개념적 행위 (스튜어트 홀)
- 자기 자신으로부터 세계로의 확장 (듀이) "예술이 소재, 내용 그리고 경험의 혼합체로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시각적이고 촉각적 기록의 필요에서 시작"
- 물질과 생각의 결합체 (아른하임) "예술은 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의 개인적 탐색이며, 아른하임은 이와 같은 예술 활동이 본래의 타고난 나와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적응 수단"
- 실질적 경험을 바탕으로 텍스트(text)를 창조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 삶의 과정이자 행동이며, 예술 작업과 같은 표현임. 여러 형태의 활동적이고 일괄된 지적 행위의 과정임



10

2. 예술과 예술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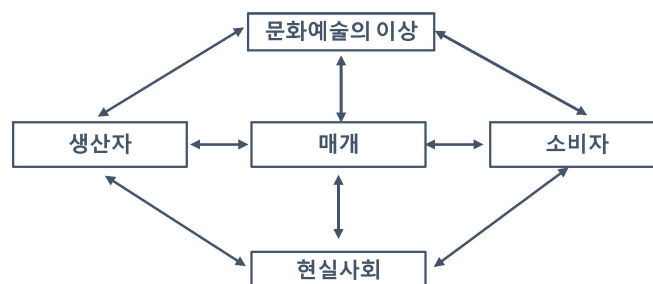
산업 사회와 예술

	산업의 변화	예술의 변화	예술교육
1차산업	증기기관 출현과 기계 대량 생산	사진과 영화 (기계매체의 등장)	행동주의(표현, 놀이)
2차 산업	전기, 석유 에너지 혁명	대중문화	인지주의 (지식, 아카데미)
3차 산업	컴퓨터와 통신 발전을 통한 지식 정보 혁명	디지털, 테크놀로지, 비디오, 사이버 스페이스, 뉴 미디어	구성주의 (의미와 가치)
4차 산업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소통체계,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최적화	기술에 대한 예술적 대응 참여와 사회적 가치 실현	문해력 (삶과 디자인) 상상력과 창의성, 공감

11

2. 예술과 예술 세계

아트 월드



12

3. 장애 예술의 개념과 변화

13

3. 장애 예술의 개념과 변화

사회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 생각하는 인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노동의 인간(경제의 인간), 소유의 인간, 이야기의 인간, 선택의 인간 등으로 세분화
- 생물학은 인간의 기초 단위로 DNA를 발견, DNA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을 생물체로 이해
- 뇌 과학의 출현은 인간을 생물학적 DNA와 경험의 결정체
- 개체의 고유성과 특성을 만드는 것을 경험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함
- 인간 존재는 행위, 사고, 의미, 가치 등의 연계 속에서 활동을 통해 구현된다는 뇌 과학적 접근은 생물학적 접근보다 인간을 더욱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
- 경험은 생애 전반에 걸친 일련의 성장과 확장 활동임

14

3. 장애 예술의 개념과 변화

장애인 예술

-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 대부분이 장애 예술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등 장애 예술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논란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문화복지신장과 문화예술의 사회적통합의 역할이 강조되어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과 관련된 예술 및 예술활동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현재까지 논의되어진 장애인 예술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로 한시적으로 정의함 (전병태 2014)

15

3. 장애 예술의 개념과 변화

장애 예술인

- 비장애예술인의 특성과 기준에 준하여 전문적인 전업 작가적 맥락을 취하는 것으로 봄
- 장애예술인은 ‘예술 창작을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며, 고용되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음(전병태2014)

16

3. 장애 예술의 개념과 변화

장애 예술인 기준(한국장애예술인총람, 2010)

- 법적 장애인으로 예술활동을 3년 이상한 장애 예술인
- 문학 부문은 문학상을 수상했거나 책을 출간한 경력이 있으며 『숏대문학』을 통해 추천 받은 사람
- 미술 부문은 미술상 수상 경력과 전시회 경력이 있으며 한국 장애인 미술 협회를 통해 추천 받은 사람

장애예술인수첩 제작(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 2018년)

- 2017년 11월 23일 개최된 ‘장애예술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에서 장애예술인의 정의와 인구를 놓고 논란이 컸음을 감안, 법률 제정에 필요한 지원 대상자 근거 자료로 ‘장애예술인수첩’ 제작
- 장애예술인수첩은 개인 300명, 단체 100곳을 수록할 예정. 게재 조건은 개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예술인, 경력 3년 이상, 수상 1회 이상 또는 작품 발표 10회 이상. 단체는 장애예술인 단원의 50% 이상, 경력 2년 이상, 작품 발표 10회 이상으로 등록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수첩 게재 대상자가 결정됨

17

3. 장애 예술의 개념과 변화

국 가	정 책 환 경	방 향 과 전 략	
		사 회 안 의 예 술	시 사 점
독 일	▪ 강력한 지방 분권과 연방의 문화적 조율 ▪ 분단과 통일, 새로운 독일 문화 ▪ 강력한 시민사회 활동과 문화교육 전통	▪ 일상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 ▪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 보편적 시민성 교육 ▪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심 한 방향	▪ 공교육 안의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 시민성 교육
프 랑 스	▪ 문화권 ▪ 문화정책과 사회문화정책간의 경계	▪ 교육 중심이 아닌 사회 활동 중심 프로그램 ▪ 개인의 예술성/ 창작성 ▪ 문화 향유 활동	▪ 공교육 ▪ 예술가
영 국	▪ 정치적 상황과 문화예술 담론의 과정 ▪ 국가정책과 지원 (창의 영국) ▪ 자발적 아마추어 활동	▪ 시민참여가 다양한 프로그램 ▪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문화다양성) ▪ 지역 커뮤니티 내 활성화 프로그램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 인간성 회복 ▪ 예술의 가치 ▪ 예술가의 노동 ▪ 예술의 지원
미 국	▪ 문화민주주의의념과 커뮤니티 아트의 사회적 토대 ▪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보원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 시민사회문화 운동	▪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 정책 기반의 프로그램 ▪ 지역민 중심의 맞춤형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지역 내 다양한 주제간의 유기적 협력 프로그램	▪ 학교 내 예술교육 취약

3. 장애 예술의 개념과 변화

국가 별 해외 문화예술정책 현황

국 가	정책
영국	1995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의 2005년 개정과 2010년에 개정된 '평등법'(Equality Act)에 기반하여 장애예술전문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를 구성, 체계적인 장애인 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을 수립하여 시행함. 계획은 1차(2007-2010), 2차(2010-2013) 수립 2006년 신노동당의 '창의적 파트너십 정책' 기조에 따른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개념을 적용하여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론 연구 및 Creative Case를 통해 뛰어난 예술적 수월성을 갖는 예술가 및 단체 발굴
미국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Society for All)를 만든다는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에 의해 공공·민간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ADC(National Arts and Disability Center), VSA(Very Special Arts)의 세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됨
프랑스	'장애인의 기회와 권리 균등 보장, 참여와 시민권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원칙을 확립하였고, 특히 정부기관 및 단체인 협정 체결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 및 향유 기회 제고에 힘씀 - 문화·관광협약 및 문화-장애협약에 의해 문화재 및 유산 관광을 장려하고, 건축물 관련 장애인 접근성 교육 강화, TV 방송 자막 작업 확대, 장애인을 위한 예외조항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함
일본	2010년부터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애자 제도 개혁 본부'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고 제도 개선 추진 - 정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와 창작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인재 양성 및 발표의 강을 마련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대표적 예술활동지원단체로서 '에이블 아트 재팬'(Able Art Japan)이 1995년부터 에이블 아트 무브먼트 전개, 2007년에는 '에이블 아트 컴퍼니' 설립

19

3. 장애 예술의 개념과 변화

새로운 추세

영국예술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문화다양성

- 평등법 제정에 따라 범사회적 차별금지를 실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위한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대표적 사업으로 다양성 실천이 영국 예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전제됨
- 잉글랜드 문화예술위원회의 미션은 '모두를 위한 위대한 문화예술(Great arts and culture for everyone)', 이는 문화다양성을 촉진하고 내재하는 예술 지원을 통해 실현
- '모두를 위한 예술'에는 다양성(diversity)과 평등(equality)을 핵심개념으로 모든 '배경'을 가진 이의 창의성을 끌어낸다는 관점에서 다양성은 창조적 다양성(Creative diversity), 노동현장에서의 다양성(Workforce diversity), 관객 또는 시장 다양성(Audience or market diversity)의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 다양성은 인종, 민족, 신념, 장애, 연령, 성, 성적정체성, 계층, 저소득층, 사회적 제도적 장애 등 문화예술 참여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들을 포괄함

20

3. 장애 예술의 개념과 변화

새로운 추세

-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 인권 운동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영국에서 장애인 예술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치료적 맥락 이상의 예술적 방식으로 자리 잡음
- 장애 예술운동(disability arts movement)은 '장애인 예술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갖는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힘으로서의 잠재력'(Barnes and Mercer, 2001: 529)을 강조한 것임. 장애인 예술가를 단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service-users)이라는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예술적 역량과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 장애 예술운동 내에서 '장애인 예술가'(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술 활동을 하는, disabled people doing art)와 '장애 예술가'(disability artists)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데(Barnes and Mercer, 2001), 이는 단순히 장애예술인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점에 감탄하거나 비장애인 예술가들처럼 작품이 좋다거나 하는 점이라기보다는, 장애에 대한 표현에서 비장애인이 갖는 인식의 한계와 왜곡에 대한 사회정치적 담론에 저항하고 이에 따른 태도를 갖는 예술적 형식이라는 점에서임



바로 이것이 장애를 가진 예술가(artist with a disability) 내에서 장애예술가(disability artist)를 구분하게 만드는 점이다. 우리는 비장애 문화계 안에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 넘어서야 할 걸림돌으로서 장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치는 우리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 억압되어 있음을 가르쳐준다(Sutherland, 1997: 159).

21

4. 국내 장애예술

22

4. 국내장애예술

장애인과 예술경험

직업교육

특수교육

치유

향유

창작

23

4. 국내 장애예술

예술에 필요한 사회적 요소

- 제도와 법
- 정책
- 환경 (작업과 공유 공간, 교육가, 작가)
- 관객과 평론

24

4. 국내 장애예술

포용적 예술에 따른 정책적 기본 방향 및 실행 전략

-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예술계에서의 인식 변화를 주도할 만한 정책적 접근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구도를 전체 문화예술정책 구도 속에서 전망
- 정책 주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역할 정립
-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민간 단위의 활동이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및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과 예술적 수월성을 목표로 지원 정책 체계 창조
- 기업을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협업과 파트너십 실천을 강구, 특히 장애 예술인의 작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한 사례연구도 유용



- 장애 예술을 문화다양성 구도에 놓아야 하며,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 포용적 예술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제와 연관하여 취해지는 비판적 성찰인 만큼, 예술계에서의 배제 논리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 장애 예술을 예술 자체의 구도로 설정함에 따라, 장애 예술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장애 예술만이 아니라, 예술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도 큰 효과를 가져 오리라 본다.
- 포용적 예술의 미학적 관점을 확산한다. 장애인의 삶과 일상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장애 정체성 혹은 자기 인식이 중요하며, 협력적 과정을 통해 비장애 예술인과 관객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 특별히 장애를 주제로만 다루지 않지만 장애적 요소가 미학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되는 유형의 '장애를 가진 예술가'(artists with disability,)와 장애 정체성에 따른 표현으로 비장애인이 갖는 편견과 인식에 사회정치적 담론으로 저항하는 '장애 예술인'(disability artists)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 장애예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한다.

25

4. 국내 장애예술

목적, 지향점과 현장을 있는 담론의 존재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가?

무엇보다는 왜?

행위에서 행위를 연결하는 일관성/ 연계성/ 흐름 속 변화를 기록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 하는 과정



- 위의 세 질문은 장애예술은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가의 현장을 파악을 가능하게 함
- 이러한 현장 속에서 개별 영역들과 네트워크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방향과 전략을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 함.
- 주체는 장애예술인과 사회를 설득하는 리더십이 결실함

26

4. 국내 장애예술

장애예술의 변화만큼 필요한 장애 예술을 수용하는 사회의 문해력이 필요

- 장애예술을 이해하는 언어가 있는 사회
- 향유, 취미, 그 이상의 아트 월드로 진입: 창작, 비평, 역사, 미학의 언어로 장애 예술을 바라보기
- 예술의 저변이 확장되는 과정 : 작가의 작업이면서 사회적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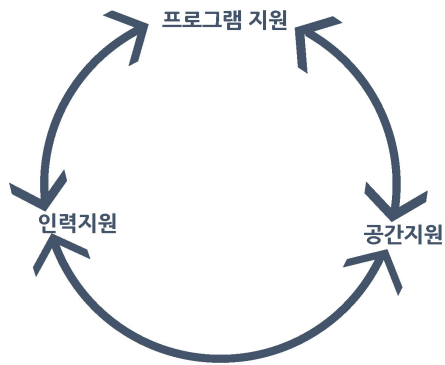
27

5. 지원방향

28

4. 국내장애예술

프로그램 지원-인력지원-공간지원의 유기적 체계마련 필요



29

4. 국내장애예술

프로그램 지원

- 양적 급증에서 질적 변화 필요

30

4. 국내장애예술

인력지원

예술가의 다양한 사회참여 방식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문화예술전문가(기관, 시설)와 지역주민간의 매개자간

문화인력으로서 문화운동자이자 문화 매개자

지역 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 촉매자

지역문화시설 보존 및 행사, 프로그램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문화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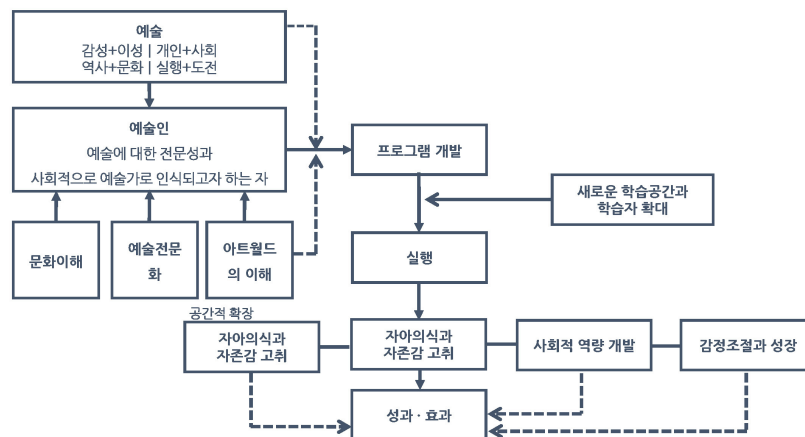
예술가, 문화공간, 지역민을 연계하는 문화코디네이터

지역주민 서비스를 위한 문화복지가

31

4. 국내장애예술

인력지원



32

4. 국내장애예술

인적 자원

- 인력양성 체계 필요
- 예술가로서의 입문 경로

기본교육	고등교육	교육자	사회 입문	구성원
초등 예술 중·고등	예술대학교	교수 기획자 에이전시	전시 공연 전승자 기획자 교육가 등의 매개 인력	비평가 미학자 갤러리스트 교육자
특수교육		특수교육		
대안적 교육 현장		예술가		

- 매개 인력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요구

33

4. 국내장애예술

공간지원의 법칙

- 접근성 마련: 생활 속 공간, 통합적 공간
- 장애 예술인의 예술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
- 2020 장애인 전용공연장 건립 등의 고무적 진전

34

감사합니다

35

발제 0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 및 콘텐츠 접근성 현안과 과제

최도인 |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20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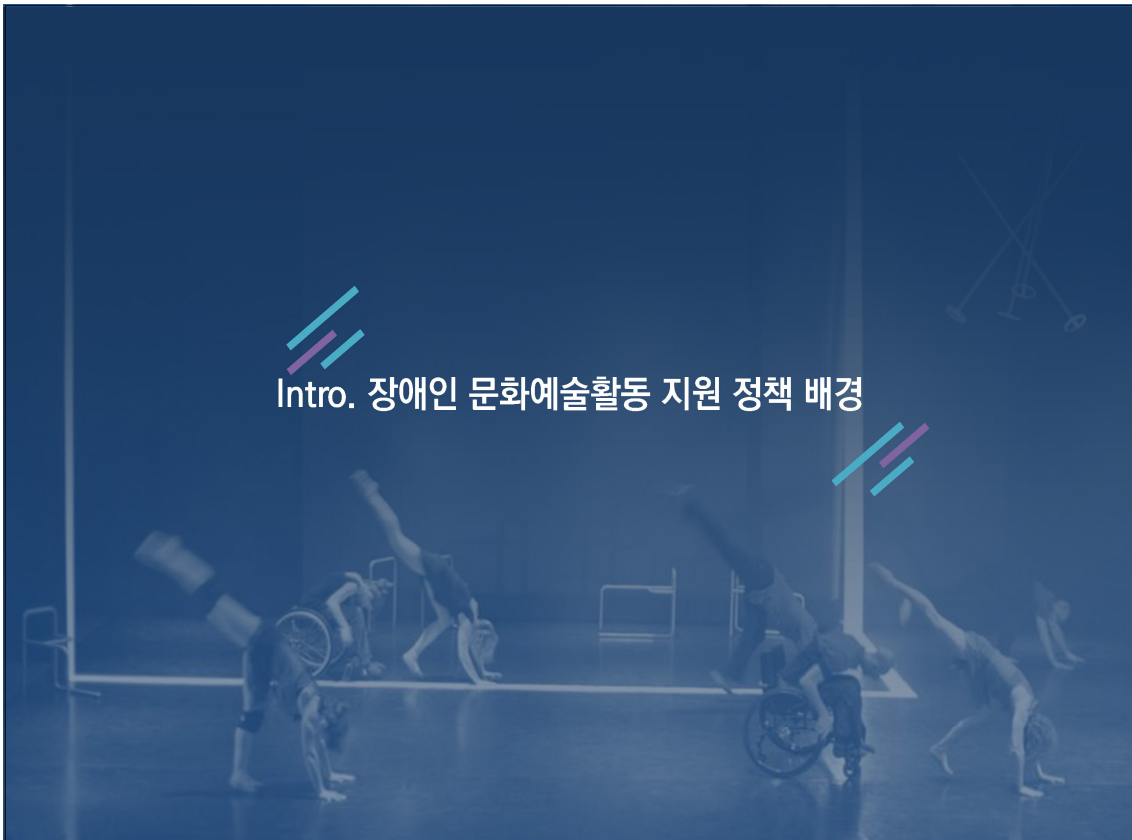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공간 및 콘텐츠 접근성 현안과 과제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전 새문화정책준비단 위원

*이 자료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메타기획컨설팅이 연구 중인 장애예술 공연장 연구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Intro.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 배경





“포용적 예술활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창의적 활동과 미학적 전략의 범주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영역”

Beyond Access – The Creative Case for Inclusive Arts Practice, Arts Access Victoria(2015)

학습장애-비학습장애 예술가의 공동작업에서 역할론과 미학적 전략, 장애예술단체 Rocket Artists와 공동연구. 영국 브라이튼 대학 발행

Inclusive Arts Practice and Research, Alice Fox and Hannah Macpherson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현황과 해외 장애예술 연구와 활동 사례, 실문을 통한 장애예술인 활동과 문화향수 실태조사 수록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8.5)

장애예술에 대한 이론적 탐구 및 장애인의 공연 접근성 매뉴얼 수록

무대 위 장애예술, 그 해석과 제안,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젯(2013.12)

-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2.12)
- 장애인 대표 공연예술단체 육성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6)
- 장애인예술 장르별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12)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7.12)
- 문화향수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7.12)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2017.1)
- Accessibility and Technology: Remote Access to Art through Telepresence Robotics, Jenna M.Hebert, The University of San Francisco(2016.12)
- Arts Access made easy, VSA arts

2

정책 배경

문화비전 2030과 연계해 발표된 새예술정책(2018~2022)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의지 표명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목표	- 예술지원체계에서의 자율성, 독립성 강화 - 예술 창작 및 향유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 -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술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삶의 질 제고와 사회혁신에 기여
[1]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	
1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 보호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2] 예술 가치 증진의 창작환경 조성	
3	예술 가치 증진의 창작 지원
4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3] 함께 누리는 예술참여 확대	
5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
6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4]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7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
8	예술의 미래가치 확장
※	법제도 개선 및 민관협력 확대

■ 장애예술 관련 주요과제 세부내용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 **장애인예술분야연구 및 정책 지원**
 - 실태조사, 장애인 총서 발간, 정책개발, 문제부내 장애인예술 정책 전담부서 신설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 통합정보지원 시스템/공유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확대
 - 창작권·향유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예술 전용공연장 조성
 - :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배리어프리 무대, 객석 및 장애인에게 필요한 멀티미디어 공연이 가능한 환경 조성 (원시장애인을 위한 모바일/VR기기 하용, 휠체어석 우선배치기 가능한 가변객석 등)
-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및 인력 육성**
 - 지역적차 해소 위한 권역별 특성화 창작거점 구축
 - 청년 장애예술가 양성 사업(Slow Arts Factory) 추진
 - 장애인예술교육 교재개발 및 전문가 육성,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협업 확대 지원, 유망 예술인 및 신진 장애인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 **장애예술 남북교류 및 국제적 관계망 확대**
 -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

3

정책 배경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지속적인 국내외 장애예술계와의 교류 및 공연, 전시, 학술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장애예술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 〈포용적 예술활동〉 강연 및 워크숍

- 장애인 문화예술의 해외 우수사례 소개 및 공유를 위해 2018년 11월,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 예술대 부학장인 앨리스 폭스(Alice Fox) 교수를 초청해 〈포용적 예술활동〉 강연 및 워크숍을 개최함



- 포용적 예술에 대한 강연과 함께 장애인·비장애 예술가 간 협력 작업에서의 사례와 실행 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장애인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8. 11.20 ~ 11.21 / 이음센터 이음아트홀

■ 이음 해외 쇼케이스 :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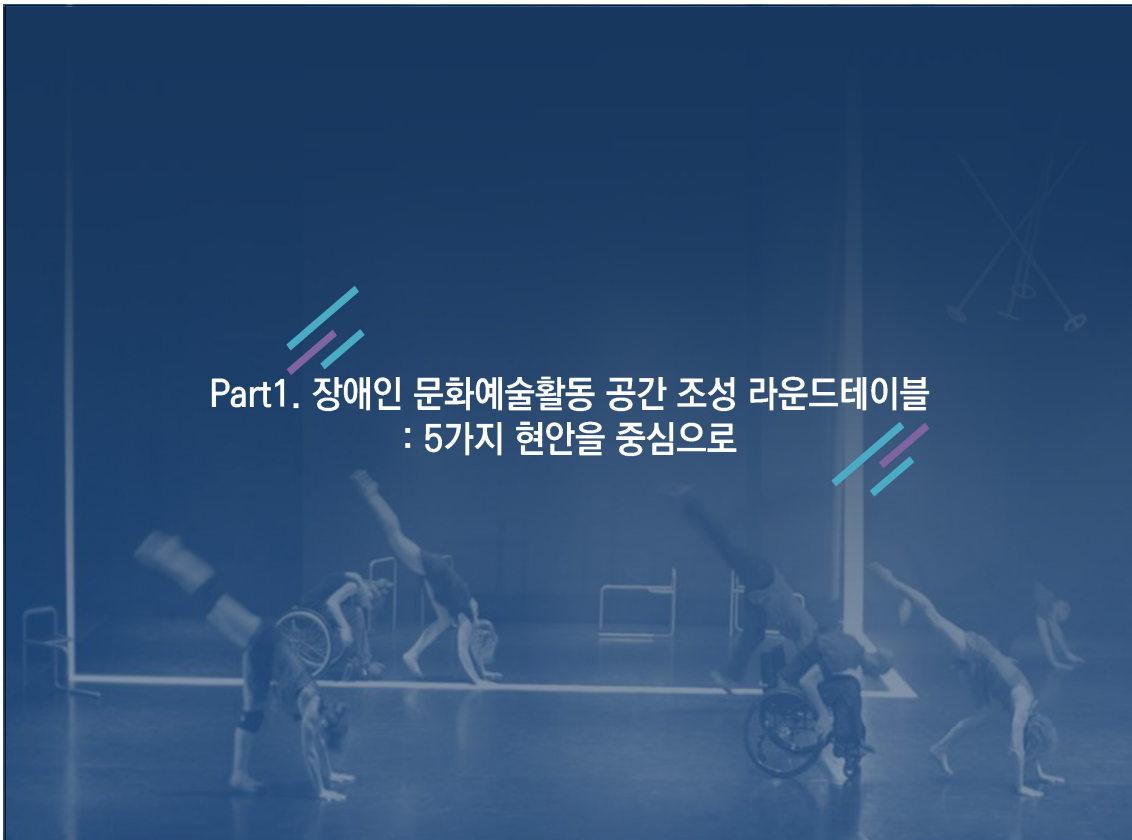
- 일반 대중의 장애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행사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역동적 발전을 이뤄오고 있는 영국의 장애예술을 경험하고 향후 협력 증진의 기회로서의 역할을 기대함
- 극단 하이징스의 연극 '프레드', 백색 증 예술가 조 배넌의 '시선', 뇌성마비 예술가 댄 도우의 렉처 퍼포먼스 '조건' 등 세 가지 작품과 함께 워크숍 및 관객과의 대화 등 부대행사를 진행함
- 특히 연극 '프레드'의 경우 한글 자막과 수어 통역을 진행하는 것에 이어 '릴렉스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 시스템을 도입, 포용적 공연관람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 관객들의 편안한 관람을 도움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주한영국문화원 공동주최
▶ 2019. 1.9 ~ 1.19 / 이음센터 이음아트홀 및 갤러리

4

Part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공간 조성 라운드테이블 : 5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라운드테이블 개요

심층 인터뷰 개요

- 장르별 예술가, 문화예술공간 운영자, 프로그램 기획자,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문화예술접근성 연구자, 장애인장애 협업창작 프로젝트 활동가 등 다양한 장애예술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 2018.9-10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12명(사전 인터뷰 등 포함 약 20명 내외)에 대해 심층인터뷰 실시

〈인터뷰 주제〉

- 1차 : 장애인예술의 의미와 역할, 활동 경향과 변화,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 2차 :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의 물리적 필요조건, 시설 및 설비
- 3차 :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의 운영적 특성, 프로그램 구성 제안

참여자 명단

대상 분야	참여자
공연예술	이OO 단장(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공간운영	송OO 대표(사회적기업 엔비전스)
공간운영	서OO 매니저(잠실창작스튜디오)
공간조성	류OO 과장(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팀)
공간운영	이OO 매니저(LG아트센터 하우스매니저)
공간조성	김OO 변호사(법무법인 한남, 작가)
공연예술	김OO 부장(한빛예술단)
공연예술	전OO(마림비스트)
공연예술	도OO 대표(더팬컴퍼니)
시각예술	최OO 대표(창작그룹 비기자)
공연예술	김OO 대표(극단 라하프)

6

라운드테이블 키워드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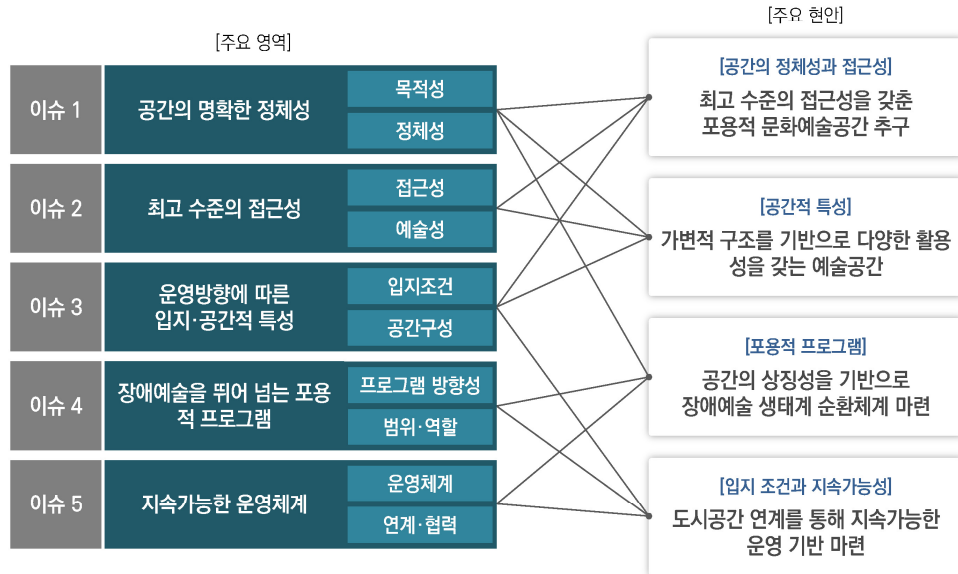
#장애인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공간 #배리어프리 #수어통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접근 방식과 태도 #공간을 넘어 서비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자극적이지 않은 색, 조명, 여유공간 #문화향유권 #사회적 인식 #제대로 된 공연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진행 담당 #민간기업 투자 #점차 융복합 경향 확대 #장애인예술가 범위 확대 #연습공간 등 부족 #공간의 타이틀이 주는 메리트 #장애인들이 문화생산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 #장애인 이용자 관점 #대중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위치 #보조기구 확충 #세련된 네이밍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 #장애인예술의 타월성 향상 #첨단설비가 적용된 공간구성 #배려의 철학이 깃든 공간 #높은 수준의 예술성 #높은 수준의 접근성 #접근성의 미학 #상징적 의미의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엑세서빌리티 매니저 #실험하고 확산하는 공간 #방향과 목적이 우선 #유니버설 디자인은 거들 뿐 #중장기적인 확산 전략 #협업구조 #할로를 모색하는 공간 #첨단기술 발전과 연계 #시각화된 소리를 위한 진동 #안전한 상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7

라운드테이블 이슈

5대 이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논의에서

최고 수준의 접근성과 포용적 문화예술공간, 가변적이고 활용도 높은 공간, 장애예술 생태계의 상징적 기반으로
로서 공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등의 현안이 제시됨



8

[현안1. 목적성]

장애를 넘어, 차별없이 어우러지는 예술공간

장애인예술극장 조성·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인가, 장애인예술극장인가?

[장애인예술에서 장애예술로]

장애인예술: '장애인'이라고 특수하게 정의된 사람들이 창작과 표현의 주체가 되는 예술활동

장애예술: '소수자'로서의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예술 (소수성을 지향하며 기존의 특정된 아름다움과 척도를 문제로 삼는 예술장르)

※'무대 위 장애예술, 그 해석과 제언' 장애인문화예술연구소 지, 2013. 12. 발제

9

목적성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어우러지는 공간”

- 장애인예술 전용극장은 장애인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공간이어야 할 것임. 현재는 장애인예술단체들이 극장 대관을 쉽게 하기 어렵고 소외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책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타자에서 이웃으로 여기게 하는 인식개선효과가 크다고 봄. 장애인 개인적인 불만에 구애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장애인예술, 극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예술가로 국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향유자와 소재로서의 장애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예술단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장애인예술전용극장의 필요 목소리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영화의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방식으로 **대관/행사기획단계부터 소외되는 장애인예술가에 활동범위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 단장

- 시각장애를 가지고 활동하는 당사자이기도 한 입장에서, 전용극장을 바라보는 장애인예술가와 장애인 이용자로서의 입장은 구별됩니다. 공간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장애인 예술가가 절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향수권자의 입장에서 장애인만 가는 곳이 되어 대중과의 접점을 더욱 잃어버리게 될까 우려되는 것이지요. 인터넷만 해도 장애인 전용페이지를 전부 없애는 추세로, 같은 페이지를 불편없이 쓰도록 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대중과 함께 만나서 호흡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문화예술공간이라면 끼리끼리 모이도록 특화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송○○ 엔비전스 대표

- 이런 특별한 공연이나 시설들을 만들고 홍보하고, 이 시설의 정체성을 부여할 때도 워딩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아주 이상적인 배리어 프리 공간인 동시에 새로운 예술적인 것을 시험하는 공간인 것이지, **일반 시설을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준비 과정에서 시설의 정체성이 일반 시설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물론 그런 기능이 이 시설에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정체성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김○○ 변호사

10

목적성

차별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와 방안에 대한 논의는 기초적 단계

특수 공연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을 넘어 배려를 전제한 사회문화적 합의 도출, 자유로운 감상 환경의 일반화 과제

서울시향,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클래식 공연

- 발달장애아동의 공연 중 소란으로 장애인 공연관람권에 대한 논의 촉발 (2017.7)
- 서울시향,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연 ‘행복한 음악회, 함께’ 정기 공연
- 영국 BBC PROMS(야외공연을 포함하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에서 감상하는 대규모 대중 클래식 축제)를 모티브로 함
- 자유로운 연주와 감상 환경 제공, 악기설명을 포함한 알기쉬운 해설과 프로그램 노트 등에서 차별성을 둠
- 청소년 장애인 협연, 대중적인 곡과 정기공연 연주 레퍼토리를 섞은 프로그램 준비
- 현 3회까지 클래식 공연장이 아닌 종교시설, 연극 공연장에서 진행하며 적합한 공연 형식을 실험 중에 있음



클래식 스페이스 : 함께!	일시: 2017년 11월 10일 장소: 천도교 중앙대교당 지휘: 최수열 협연: 이성준(서울정문학교) 곡동규(연북중학교)
행복한음악회, 함께 I	일시: 2018년 7월 14일(토) 장소: 천도교 중앙대교당 지휘: 차웅 협연: 박은범(17, 서원고) 송윤호(13, 셋별중)
행복한음악회, 함께 II	일시: 2018년 10월 6일 장소: 세실극장 지휘: 차웅 협연: 이상우(18), 차지우(21), 드림위드 앙상블

11

목적성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시설로서 상징성 확보”

- 미국 장애 복지법(ADA)이 강력한 의무로서 기능하는 반면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준수할 필요가 없이 권고에서 그치고 있음. 선진국을 흉내 내는 단계를 넘어 장애인정책이 선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서 이 공간이 인지되었으면 함
- 건축디자인 목표로서 총래 편의증진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더 나아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비단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대표적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로서 회자될 수 있는 랜드마크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임

- 미국의 ADA법을 보면, 시설별로, 기차는 리모델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만 있죠. 굉장히 부끄러운 안 지켜도 되는 법. 근데 그걸 다른 나라에서 와서 봤을 때, 한국은 장애인들에 대한 선진국의 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는 안 지켜도 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예술전용극장을 만든다는 것이 저희가 그걸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선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OO 한빛예술단 성악부장

- 혼자서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치와 설비들을 계속 더하고 더하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해서 필요에 의해서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없는 공간. **제약과 한계에서 벗어난 것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랜드마크가 되면** 어떨까 해요. 항상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야 하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 김OO 변호사

12

[현안2. 접근성과 예술성]

접근성을 추구하는 과정, 방법 자체가 예술이 되는 공간

장애인예술극장이 추구해야 할 접근성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물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운영적 차원의 접근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

접근성과 예술성

“가장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충족하는 공간”

- 기존 공연장의 개축으로는 요구되는 수준의 접근성을 만족하기 어려움. 공연장 seating 자체에 수어통역자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은 최소설계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임
-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뿐만 아니라, 전생애주기와 내부장애, 종교적 특성 등 모든 사람의 필요를 상정해야 함

- 호흡기를 끼고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도 최적의 각도로 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장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만든다면. 예측할 수 없는 워낙 많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창작자와 관객들의 거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액세스할 수 있게 열려 있는 특정한 공연장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이 보편성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지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사실 완전히 보편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또 어떤 장애 예술의 홍보 수단도 될 수 있겠죠.

- 김OO 변호사

- 배리어프리 물은 어느정도 다 나와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나 인증을 여기에 담으려고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담아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예술전용극장이라는 표현도 상징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한데, 저희 쪽에서도 편의증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장애인을 타겟으로 해서 편익을 증진했던 게 목적이었던 것을 유니버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접근가능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 류OO 한국장애인개발원 과장

- 저희가 UD예기를 하면서도 대상으로 하는 게 휠체어와 시각장애인을 제일 많이 해요. 거기서 소외된 게 청각장애인이고, 더 많이 소외된 게 지적, 발달 장애인. 신체적 장애가 없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법이나 매뉴얼에도 거기까지 배려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선진국 미국, 일본을 보면 내부장애부터 해서 알리지 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을 본 적이 없는데, 거기 식당이 있다고 하면 식당에서 알리지, 할랄 까지도 배려하고, 이슬람 종교 기도실, 지적장애인을 위해 성인기저귀 교체공간까지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 류OO 한국장애인개발원 과장

14

접근성과 예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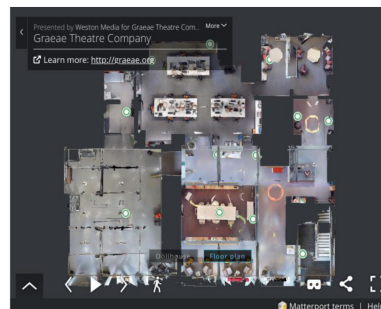
공간,서비스디자인과 공연작품을 통한, 접근성마저 예술적으로 다양한 경로의 대체적 예술체험이 가능한 실험적인 공간

그라이아아 시어터의 접근성 제공방식

- 지체장애인: 접근가능한 공연장소의 확보 (무대와 무대 뒤, 관객 공간 전체)
- 청각장애인: 영국식 수화 및 자막을 공연에 통합. 의사소통 수단인 동시에 창의적인 요소로 작품에 적용
- 시각장애인: 헤드셋을 통해 시각요소를 묘사하는 음성해설서비스 제공. 해설방식에 미적인 요소 도입. 또한 공연 전 무대세트와 무대 모형을 만져보는 '촉각여행' 진행
- 지적장애인: 이야기와 등장인물이 단순한 영어와 그림으로 묘사된 쉽게 읽히는 시놉시스 제공

그라이아아 시어터 (Graeae Theatre Company)

- 1980년 이후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공연 접근성의 미학을 가장 선구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단체
- 2012 런던올림픽 개막식 공연 Unlimited 참가
- Prometheus Awakes와 같은 스펙터클한 야와 퍼포먼스아트, 창작 연극, 뮤지컬 다수 제작 공연
- 그라이아아 상주 전용건물인 브래드버리 스튜디오. 장애인 아티스트에 이상적인 접근성을 확보한 사무실과 연습장 공연장 포함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요소의 묘사 음성해설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국식 수화 및 자막 공연 통합



※ 브래드버리 스튜디오 안내, 3D 동선 시뮬레이션 화면

15

[현안3. 프로그램 방향성]

장애예술 창작 활동의 확장적 기반이 되는 공간

장애인예술극장이 추구해야 할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장애인예술의 활동 범위와 역할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16

프로그램 방향성

“예술에서 타 분야 아티스트와의 협업은 이제 필수적, 장애 예술가와의 협력을 돕는 구조 마련되어야”

- 예술에서 타 분야 아티스트와의 협업구조는 굉장히 중요하다. 비장애인의 예술협업 환경은 나날이 개선되는 데 반해, 장애예술지원공간은 기본적인 시설 여건이 워낙 열악하며 운영 개념적으로도 뒤떨어져 비장애인들의 창작환경과 장애예술 창작환경은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장애문화예술의 발전과 활로를 모색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포함되었으면 함. 공연 공간 뿐 아니라 연습 공간, 창작 공간 등 다양한 장르 예술인들이 체류하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면 협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예술 저변을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장애예술공연의 예술적 가능성과 탁월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도 다양한 공연의 상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장애예술이 쇠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의 협업 기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해요. 상설프로그램으로 장애예술인의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육을 받는 입장이나 장애인으로서가 아닌,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협업을 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후 참여자가 예술가로 자립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까지 이르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일단 **외부의 협력자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득활동과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최OO 비기자 대표

- ‘라하프’가 공연을 올리고 성과를 보기까지는 무지컬컴퍼니 전문가그룹과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용 극장 같은 이런 창작 공간이 꼭 장애예술인끼리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OO 극단 라하프 대표

- 사실 저희도 대관을 받고 막상 공연을 만들어 낸 것 보면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네 하는 단점들도 있어요. 장애인 전용 공간이 지어지고, 장애인 아티스트 분들도 서시지만, **아마추어적인 장애인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활용의 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OO LG아트센터 하우스매니저

- 장애인 몇 명이 올라와서 춤추고 한다고 하면 유치해보이고, ‘장애인들이 저런 거 하나까 공연장이나 대여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런 공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예술적 가능성도 잡아낼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장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되, 그 안에서 예술적인 탁월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겁니다.

김OO 변호사

17

프로그램 방향성

우수프로그램/콘텐츠 기획과 유치, 공연과 연습을 위한 장비와 공간의 지원

장애인예술, 장애예술 전반의 예술성 향상 목적화

공연장 자체가 아마추어 예술가에 기회도 되어야 하지만 높은 수준의 공연을 하는 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져가야 함
이곳의 공연이 보편적 기준 이상을 만족한다는 신뢰는 쌓여야 함. 모두에게 열려 있되, 예술적 탁월성을 보여주는 기획이 필요함

Unlimited

- 세계 최대 규모의 장애인예술창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장르의 구분 없이 뛰어난 장애인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열정 있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함
- 영국 내 및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예술에 대한 개념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수준 높은 작품의 창작을 지원함
- 2년마다 개최되는 Southbank의 Unlimited Festival 기획
- 2013~16년 사이 약 2,300일에 해당하는 공연과 전시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130,000명의 관객을 동원하였음
- 셰이프아츠(Shape Arts)와 아트어드민(Artsadmin)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 웨일즈예술위원회, 사우스뱅크 센터, 트램웨이, 스피릿 오브 2012, 영국문화원 등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음



18

[현안4. 운영체제와 연계·협력]

장애예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공간

장애인예술극장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운영체제의 조건은 무엇인가?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추구해야 할 연계·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19

운영체제와 연계·협력

“세분화된 예술 접근성 전문인력과 창조적 활동 조력자 양성”

- 일반 공연장에서는 접근성에 대한 구조적인 미비점을 멘토링 서비스로 보완하고 있는데, 장애인 입장에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공간디자인이 필요함
- 해외 사례에서 일부 확인되는 바, 전문적인 경험을 축적한 ‘엑세서빌리티 매니저’와 같은 인적자원의 육성도 병행되어야 함
- 장애인예술과 엑세서빌리티 측면의 ‘실험적 공간’으로서, 향후 유사 예술활동 거점들이 생겨날 때 검증된 서비스와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장애인 관객이 오셨을 때 항상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업무를 포기하고 뛰어가서 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하우스 매니저도 자주 바뀌고, 안내원도 자주 바뀌다보면 지속된 서비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극장을 짓게 되면 건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간을 운영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설계에 반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보통은 참고하려고 극장을 보러 오셔서 다 외관만 보시거든요. 새로 짓게 되면 운영하는 공간이나 사람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필요할거라 생각 되네요.

- 이OO LG아트센터 하우스매니저

- 외상장애인 이용까지 생각해서 공간을 크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공간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사용될 때와 안 사용되지 않을 때에 대한 운영도 다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죠. UD라고 했을 때, 그래야 전용물이 되지 않아요. 외상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되지 않는 거죠.

- 류OO 한국장애인개발원 과장

- 영국 페스티벌에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엑세서빌리티 매니저 일을 하더라고요. 컨설팅해주고, 예술에 있어서는 엑세서빌리티가 복잡하거든요. 시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정도의 체험이 가능하게 할 것이냐. 기술적인 문제에 철학적인 문제기도 하고, 음악에 대한 청각장애인, 미술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경험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끝이 없는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접근성 매니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생긴다면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온갖 실험을 해보고, **온갖 장애유형의 사람들을 응대해보고 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그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 이상의 의미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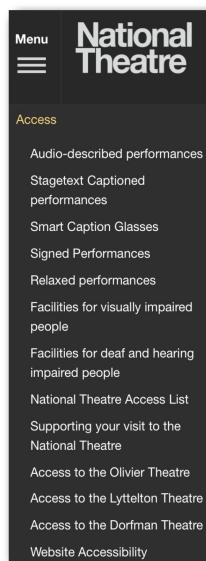
- 김OO 변호사

20

운영체제와 연계·협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 실험하고 확산하는 공간

서비스디자인적 접근과 엑세서빌리티 전문인력 육성/확산의 역할 담당



영국National Theatre 접근성Access 메뉴

13개 항목 프로그램과 시설 사용 안내

- 음성해설 공연
- 대사 자막 공연
- 스마트 캡션 안경
- 수어 공연
- 발달장애 대상 공연(Relaxed performances)
- 시각장애인 시설
- 청각장애인 시설
- 장애인 티켓할인 등 메일 등록 안내
- 극장 방문 안내/지원
- 3개 홀 각각의 입장로, 층별 객석 세부묘사
- 텍스트 크기 조절 등 웹사이트 이용 안내

Graeae 접근성 지원자 제도 Access Supporter

작업하거나 훈련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접근성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접근성지원자, 수화 통역자, 커뮤니케이션 지원 인력, 창작 조력자, 음성해설자, 대필자, 순화자로 세분화해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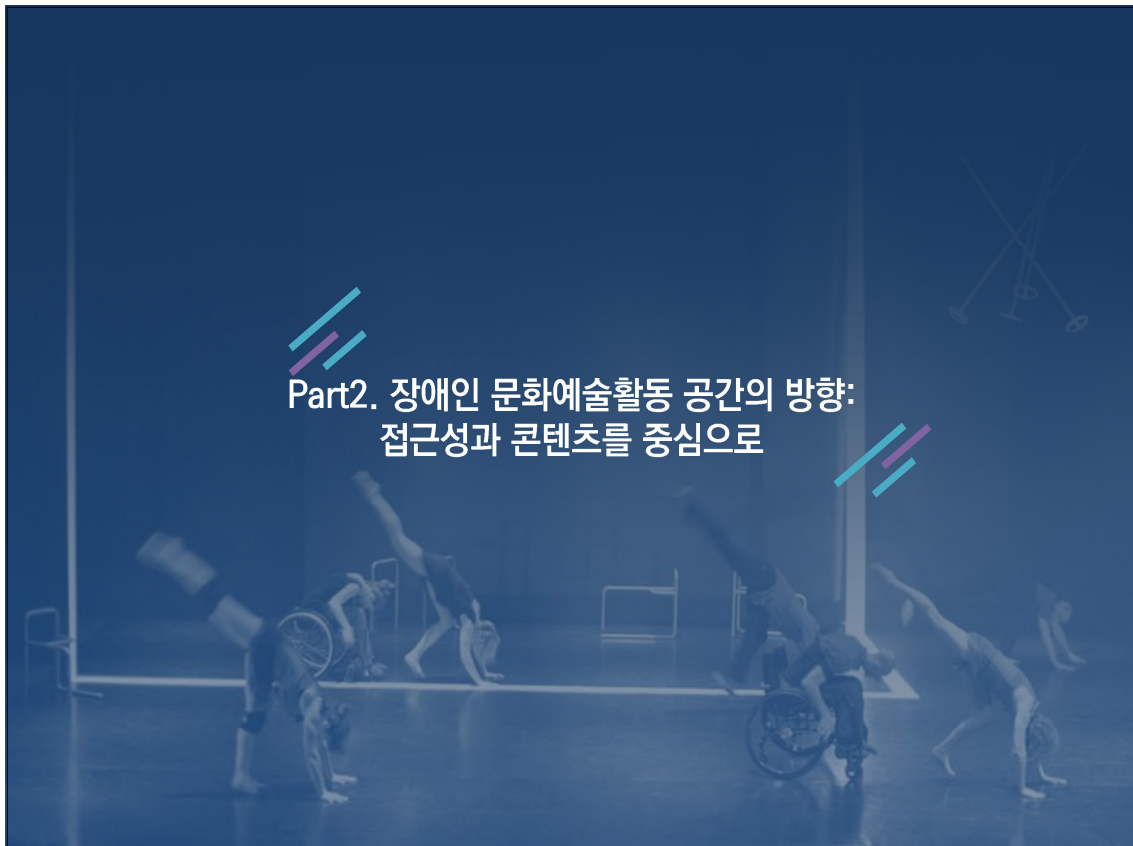
창작조력자 Creative Enabler

Graeae의 작업에서 태어난 개념. 장애인 예술가가 작업하는데 대한 접근성 지원 개인 관리 또는 기본 관리 작업을 제공하기보다는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발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 두대위장애예술,그해역과제단(2013.12)취재:홍영범



2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접근성

정책·제도 접근성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장애인 예술 지원”

- 장애인 예술 관련 상위/관련 정책 및 계획 검토를 통한 연계
- 법적, 제도적 사항에 따른 당위성

물리적 접근성

“통행과 이용이 자유로운 예술공간”

- 공연장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접근성
- 장애인 접근성 및 장애인 예술 상연이 보장된 공연장 인프라

콘텐츠 접근성

“다양성을 추구하는 폭넓은 프로그램”

- 장애인 예술 상연 및 향유와 관련한 공연/교육 등 프로그램
- 국내외 동향 및 트렌드

심리 접근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환경”

- 장애인 예술 특화 관객 서비스의 필요성
- 유니버설 디자인의 흐름과 사례

과제1. 정책·제도 접근성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예술 권리의 법적 보장 및 장애예술 공간

[관련 정책]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18)

**국민의문화향유기회
전면 확대**

문화비전 2030
(문화체육관광부, 2018)

**국민의문화향유기회확대및
문화정책상의다양한표현보장**

[관련 의제 및 대표 과제 주요 내용]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 장애인 관객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및 물리적 접근성 개선
-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친 **장애인 예술 전용극장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제고,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 인프라·창작자·이용자를 연결하는 문화향유 생태기반 구축

- (장애인) 무장애 환경 조성 및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설립**, 일반 영화관 내 장애인·비장애인 동시관람 시스템 구축 등

의제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문화정책상의 다양한 표현 보장을 위한 문화생태계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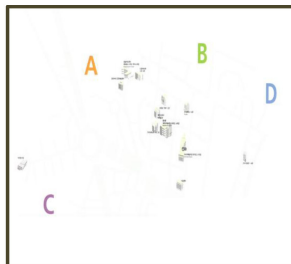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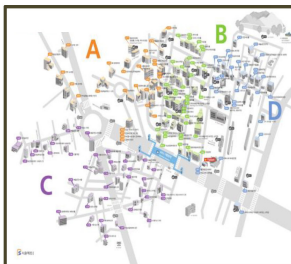
-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 장애의 문화적 표현과 체험 기회 확대 등의 구체적인 사업 발굴
문화정책상에 기반한 예술 지원의 다양성 증진 (장애, 젠더, 지역, 인종, 종교 등)

24

과제2. 물리적 접근성

문화예술 시설 및 인프라 검토 결과,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공연장은 극소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장애인들의 실질적 장벽이 해갈되어야 함

▪ 대학로 인근 휠체어 이용자 접근성 만족 공연장 현황



'대학로에 위치한 공연장' 약 120곳 중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활동보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공연장 14곳이다. 그 중 휠체어 이용자가 창작자로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사실상 1곳이며, 음향 및 조명 조정실에는 접근할 수 없다. 정기적으로 수어통역, 문자통역, 화면해설 등 **배리어프리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을 상연하는 공연장은 없다**

※ Oset project_극장편 (2018.10), 실태조사, 모니터링 리스트, 재구성 이미지 인용

국내 주요 공연장 무대 접근성 현황		자료: (한국문화재단) 조사
세종문화회관	세종대입버출	계단(요청하면 경사로 설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계단 또는 리프트(요청하면 경사로 설치)
	CJ토월극장	계단 또는 리프트(요청하면 경사로 설치)
국립극장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계단
	해오름극장	계단
	달오름극장	계단

▪ 국내 주요 공연장 무대 접근성 현황

- 장애인의 경우 공연장 무대로의 접근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
- 이에 2018년 1월, 정부는 공연장·강당 등의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 2년 안에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과시킨 바 있음

25

과제3. 콘텐츠 접근성

장애인들이 참여,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장애예술의 정체성을 반영·확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지속적 제작 및 상연 필요

국내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

■ 2,583대 12, 비장애인인과 장애인의 공연 횟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서울·경기 지역 주요 문예회관 35개소(서울 13, 경기 22)의 장애인 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비장애인 공연은 1130회가 무대에 올려 졌으나 장애예술인이 만든 공연은 4회(0.35%)에 불과했다. 경기지역도 1453회 공연이 열렸으나, 장애예술인 공연은 8회(0.55%)에 지나지 않았다. 전시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의 경우 151회 전시회 중 5회(3.31%)에 그쳤고, 경기지역은 167회 전시회가 열렸으나 장애예술인 전시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출처: 세계일보 기사(2014.11.11)

서울지역 문화예술회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 (단위: 건, 2012년)

기관	공연		전시	
	비 장애인	장애인	비 장애인	장애인
구로아트밸리	33	0	3	0
관악문화도서관	18	0	0	0
용산아트홀	73	1	9	0
은평문화예술회관	26	0	1	0
강북문화예술회관	5	0	0	0
영등포아트홀	48	0	1	0
충무아트홀	49	0	5	0
금나래아트홀	31	0	4	0
서대문문화회관	3	0	0	0
노원문화예술회관	67	2	9	0
마포아트센터	127	0	8	1
광진문화예술회관	159	1	39	3
세종문화회관	491	0	72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6

콘텐츠 접근성

장애, 여성, 고령화사회, 인권 등
다양성 관련 이슈들이 결합하는 추세가 국내외에서 확인,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가치 공유 활동 연계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 ‘춤추는 허리’는 2003년 창단한 국내 유일의 장애여성극단으로, 장애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박탈당해 왔던 결정권, 발언권에 대해 지속적인 작품활동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함
- 연극 공연 자체제작/상연 및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장애여성의 정체성과 경험, 나아가 다양한 인권 감수성에 대해 나누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구분	세부항목	설명
공연	찾아가는 공연	직접 찾아가서 보여드리는 공연
	토론회	이슈나 주제를 토론회로 제작, 관객과 함께 만들어감
	거리공연/문화제	작은 공연, 퍼포먼스 등
교육/워크숍	장애여성 연극아카데미	연극에 대한 기초부터 이론부터 실기까지
	인권연극 강사 양성	인권연극 강사 양성 프로그램
	인권연극 교육	연극을 통한 인권감수성 키우기
	연극 만들기 워크숍	참여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모아 직접 대본을 쓰고 공연 진행



영국 사우스뱅크 센터(Southbank Centre)의 다양한 프로그램

치네케 오케스트라(Chineke Orchestra)

- 유럽 최초로 흑인과 유색인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Southbank Centre 상주 예술단체
- 그동안 백인 위주의 문화였던 클래식계를 넓히고 다양성을 불어넣고 있음



WOW(Women of the World festival)

- 성평등을 주제로 한 축제로 2010년 Southbank Centre의 Royal Festival Hall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매년 열리고 있음
- 축제 기간 동안 공연, 토론, 연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2018년에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53개의 국가에서 열릴 정도로 큰 규모로 성장



DRAG: Self-portraits and Body Politics

- 3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여 구성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성과 몸에 관련된 담론 전시
-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의 연대기적 서사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발개의 목소리로 전달하여 다양성을 담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춤



27

4. 심리 접근성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의 공연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물리적 장벽의 제거와 함께 정보 및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고려되어야 함

■ 영국, 런던공연장협회(Society of London Theatre, SOLT)

- 1908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공연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꾸준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해 옴
- 웨스트엔드의 여러 상업 뮤지컬 뿐만 아니라 국립극장(NT) 등 공공극장 프로그램 책자/홈페이지에 네 가지 표식을 통해 알림
- 액세스 런던 시어터(Access London Theatre)의 이름으로 장애인 친화적 공연 정보를 홈페이지, 책자, CD 등의 형태로 1년에 3차례 씩 무료 제공
- 서비스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까지 제공, 협조가 쉽도록 함

Audio Description 오디오 해설

- ✓ 시각장애를 가진 관객에게 오디오 서비스가 제공됨
- ✓ 헤드셋을 통해 공연의 내용과 대사는 물론 장치, 의상 등 무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말과 각종 소리로 전달함

Captioning 자막

- ✓ 청각장애를 가진 관객에게 자막 서비스가 제공됨
- ✓ 대사는 물론, 출연진 이름과 각종 음향효과까지 문자로 전달
-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관객에게도 도움이 됨

Sign Language Interpreted Performances 수화 통역

- ✓ 청각장애를 가진 관객에게 수화 서비스가 제공됨
- ✓ 관객이 잘 보이는 곳에 선 수화 통역자가 공연 속도에 맞춰 수화

Relaxed Performances

- ✓ 자폐 증상이 있거나 각종 학습장애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관객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함

ACCESS LONDON THEATRE

MATILDA THE MUSICAL

Cambridge Theatre, Earlham Street
Covent Garden

T: 0844 412 4648 (Calls cost 7p/min)† E: access@seetickets.com
Price: £33.75-£37.25* | Length: 2 hr 35 mins

Inspired by the twisted genius of Roald Dahl, Matilda is the record-breaking musical masterpiece from the RSC.

Audio-described: Sat 25 Nov 2.30pm (Touch Tour 12.30pm) (in-house)
Captioned: Sun 26 Nov 3pm (in-house)
Signed: Sat 11 Nov 2.30pm (by Donna Ruane for TheatreSign)

28

접근성 측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목적과 방향



29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콘텐츠

공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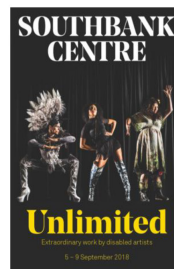
장애예술에 전문성을 둔 기획 역량을 갖춘 극장으로서 입지 확보
장애예술 프로그래밍 전문 기획팀을 갖추고 국내외 장애예술가,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지원사업 연계

- 국내 작품 제작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예술 지원범주 정립 및 공연장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공연프로그램 구성
- 중장기적으로 제작공연, 기획공연의 비중을 높여 수준 높은 기획공연장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함. 공연예술 프로그래밍 과정의 전문성을 높여 주제성을 공유하는 창의적인 작품들이 배출되도록 함

■ 공연 콘텐츠 예시

구분	공연작품 구성
제작	- 장애예술공연장 주도 기획된 창작작품 - 창작지원 과정, 협력프로그램과 연계 개발된 작품
기획	- 장애예술가가 제작(by)에 참여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연주 등 장애예술 범주 내 작품 중심 기획 - 장애와 소외 등 주제성을 공유하거나 접근성을 지원하는 작품들과의 협약 등을 통한 정기기획 (예술사랑행복한음악회함께등) - 해외 주요 장애예술단의 첨단 작품의 소개를 목적으로 예술성 높은 공연작품 초청
대관	- 장애인외 공연문화향수의 기회를 높일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에 대한 - 대관작품의 수어통역, 촉각투어 등 장애인 접근성 지원

기획공연 예시 | 언리미티드



- 세계 최대 규모의 장애인예술창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장르 구분 없이 뛰어난 장애인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함
-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장애인예술에 대한 개념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수준 높은 작품의 창작을 지원함
- 2년마다 개최되는 Unlimited Festival을 기획해 2013~2016년 사이 약 2,300일에 해당하는 공연과 전시를 지원하였으며 130,000명의 관객을 동원함
- 셰이프 아츠(Shape Arts)와 아트어드민(Artsadmin)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 웨일즈예술위원회, 사우스뱅크 센터, 트램웨이, 스피릿 오브 2012, 영국문화원 등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음

30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콘텐츠

교육/워크숍 프로그램

장애예술인 및 접근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 장애인들의 예술활동과 향유를 위해 역량 발전 및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해 장애예술인의 소통과 자기표현 확대, 사회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
- 공연 상연과 함께 장애예술교육 및 자원인력 전문 양성 프로그램

■ 장애예술 교육 프로그램

- 다양한 대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으로 공연장 활용도를 확대하고 장애예술 장벽을 낮추며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함
- 연극, 무용, 음악 등 예술활동을 희망하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및 멘토 매칭 진행, 장애예술가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상호이해 워크숍 운영 등

■ 접근성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 장애예술 공연장 스탭진을 포함해 타 공연장 및 장애예술 지원/제작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접근법 및 다각적 지원책, 장기적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 매뉴얼 제공을 목표로 함
- 공연장 접근성 전문가 뿐 아니라 장애예술 특수 교육자 및 수화/문자통역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 프로그램 구성

교육/워크숍 프로그램 예시 | EASE



- EASE(Everyday Arts for Special Education)는 미국 교육부의 혁신펀드(3) 수혜 프로그램으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이러한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특수 교육자 및 예체능교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특수 교육자 및 예체능교사를 예술전문인력이 직접 멘토링하여 학교 내 정규 수업 과정에서 음악, 무용, 미술, 연극 등을 이용하여 장애학생의 소통능력과 학습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
- EASE 프로그램은 통합교육이 시작되기 전 preschool(통상 3,4살)부터 12th grade까지를 대상으로 개인별, 수준별에 맞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필요한 유인물, 음원 등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공됨

3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콘텐츠

창작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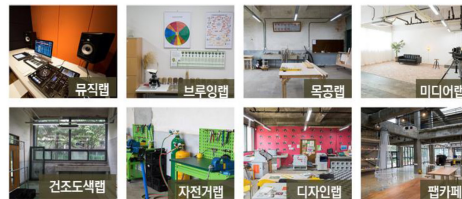
협업지원 프로세스를 주축으로 장애예술 창작 파이프라인

- 창작지원 프로젝트로서 예술가/예술분야/장르 간의 협업 활성화를 요체로 삼아 장애예술 작품의 창작 및 메소드 개발을 추진하며 지원대상의 채택프로세스를 공정히 확립하고 활동 모니터링과 예술창작지원 전문 인력을 통해 밀착된 프로그램 운영
- 이음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교류/협업의 네트워킹 과정의 확장을 지속해 장애예술 생태계의 중심거점으로 역할

■ 창작지원 프로그램

- 창작자 발굴 토대로서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장애예술 창작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영자 주도의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예술가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킹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 있을 것으로 봄
- 작품을 발표할 공연장은 물론 만나서 연습/창작활동을 할 공간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창작자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음. 멤버십 등록과 같은 형식으로 예술가 혹은 예술활동 지망자들이 소속감을 갖고 장애예술 네트워크에 포함되도록 함
- 이후 창작지원 매니저를 통한 협업 연계 및 기획 창작작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적 창작지원 운영 활성화 정도에 따라 활동장비와 지원 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비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협업창작환경지원 | 경기상상캠퍼스 상상실험실



- 옛 서울대 농대 부지와 6개 동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기술창업가를 지칭하는 '그루브' 코워킹스페이스 및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
- 창업·창직, 생활문화, 융·복합문화에서 활동하는 입주단체가 상주, 교육/실험/제작/공유 프로그램이 다시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구축
- 레지던시 이용자 분야: 소프트웨어개발, 독립출판, 캐릭터디자인, 보드게임디자인, 패션 디자인, 목공, 자전거, 음악, 수제맥주, 미디어(사진, 영상)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등 각종 분야 전문가 입주 협업함

3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콘텐츠

접근성 특화 프로그램

장애예술 공연장의 접근성 특화 프로그램 개발로 네트워킹, 공연장 이용자 커뮤니티 확산

-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예술을 향유하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다양성을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적인 전시·예술체험 프로그램 가동
- 충분히 공간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인적 매니지먼트 체계

■ 공간활용 프로그램의 구성

- 시각예술 작품을 포함, 만지고 느끼는 각종 체험예술작품의 전시로 다양한 장애예술의 발표경로이면서 상시적으로 시민에 친근하고 밀접한 공간으로 역할

■ 장애예술 공연장 특화 프로그램

- 예술가와 분야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공간장비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창작활동 조력자 및 접근성 매니저와 같은 전문인력에 대한 육성프로그램을 제공함

체험콘텐츠 | 어둠속의 대화(Dialog in the Dark)



- 독일에서 시작된 '어둠속의 대화'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특화된 공간으로서 전시, 체험 진행을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담당함
- 주 관객층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관람하는 전시'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오히려 안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음
- '장애'보다는 '어둠'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낭독콘서트, 연주회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시각을 배제한 다른 감각들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 중

3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구성

공연공간과 창작 및 교육공간, 편의공간 등의 조합 방식에 따라
공간별로 필요한 구성과 면적, 형태와 그에 따른 특화된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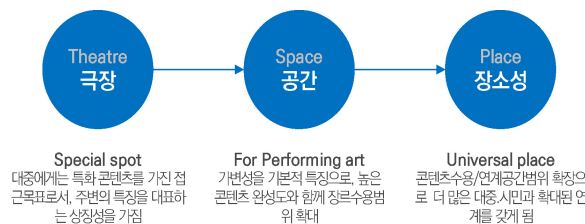
34

[참고: 문화예술공간 조성환경 변화 동향, 3세대 극장의 특징]

공간조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 모든 측면의 비정형화
가변적 공간활용으로 프로그램 다양성과 대중에 대한 개방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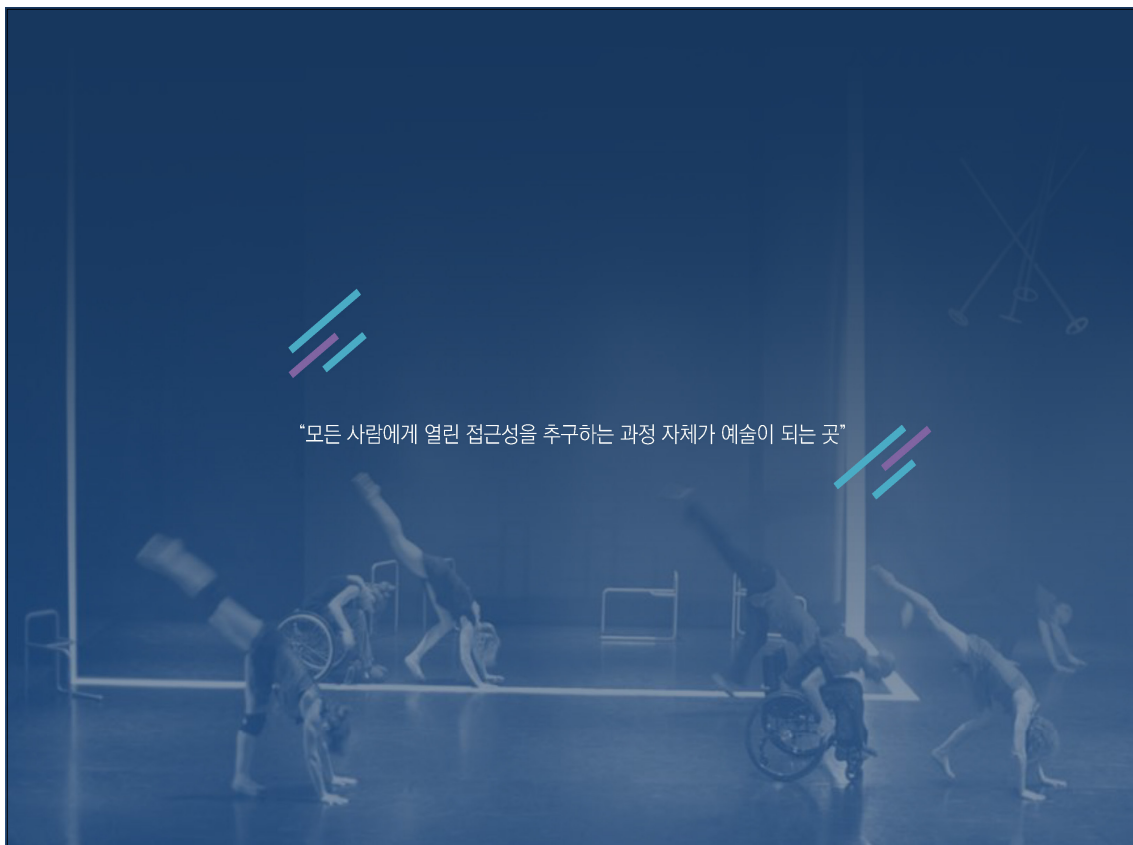
[3세대 극장의 특징]

- 공간적 측면: 완성도 높은 가변성, 공간의 개방성
 - 정형화되지 않은 오디토리엄(무대객석공간), 가장 정형화 되어있어야 할 전용극장조차 자유롭게 변화되는 유연성을 가짐.
 - 각각의 변화된 상태에서 극장으로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형태적 특징
 - 오디토리엄의 개방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수용하게 되는 극장의 내부 공간과 함께 오디토리엄 외부의 다양한 영역과의 연결성
- 프로그램적 측면: 공연장르를 벗어난 탈장르, 다양성
 - 극예술 공연장르 한정성을 벗어나 모든 문화적 소스가 프리젠테이션되며, 개별 극장공간이 다양한 역할수행
- 운영적 측면: 운영 자립성, 시민성, 대중성의 확보
 - 극장 가동률 증가와 함께 부대 상업시설의 적극 활용
 -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극장을 방문하고, 사회적 화제에 오르며 시민들의 일상 속의 공간으로 자리잡은 극장



※ '극장건설통과3세대극장, 강재훈, 2017.9. 내용 발제

35



발제 0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의 문화예술활동의 가치와 의미

정중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수석부회장(직업재활학 박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의 자립생활운동과 문화예술활동의 의미

정중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수석부회장, 직업재활학 박사)

장애인에게 직업과 직업재활이 지닌 의미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은 한 개인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생계보장 그 원천일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를 확인시킨다. 인간은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자아완성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직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직업을 자아완성의 필수불가결 요소라고 하는 이유다. 직업을 갖고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지는 권리이며, 장애인도 그 예외일 수 없다.

장애인에게 직업은 단순한 소득보장 수단만이 아닌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는 자아실현의 의미를 지닐 만큼 그의 삶에 있어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직업을 갖기 위해 노동현장과 맺는 관계가 매우 취약하기만 하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표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시대의 노동시장에서 “시장이 호경기 땀 마지막으로 고용되고 불경기 땀 최초로 해고 된다”는 말 그대로 노동시장에서도 장애인의 주변화 현상은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고, 그로인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빈곤층화(working poor)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집단을 사회적 배제집단(social exclusion group)으로 영구 전락시킬 구조적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과 ‘장애인’이라는 용어 탄생

장애인의 노동현실은 왜 이리도 열악한가. 또한 노동의 질은 왜 이렇게 추락하였는가.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것이 낯설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장애인운동사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시기를 ‘장애인’이란 용어가 탄생한 산업혁명기로 삼는다.

산업혁명 이전 중세 유럽시대까지만 해도 이른바 장애인들은 공동체 내에서 고유의 직업

을 갖고 함께 살고 있었다.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봉건사회의 장원경제(莊園經濟)에선 가정생활과 노동현장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기에 이른바 장애인들도 어떤 형태로든 직업을 지니고서 사회공동체의 경제사회적 시스템에서 배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직업을 천직(天職)으로 삼았던 당시에 그들은 비록 육체적 손상은 있을망정 무능력자(장애인)는 아니었다. 그런데 국부 창출을 위해 생산력과 이윤증대 극대화를 추구하며 노동자를 기계의 '수족'으로 취급하던 중노동과 장시간의 육체적 노동현장에서 이른바 장애인들은 비생산적 존재로 여겨져 노동현장 진입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당했다. 벤담(Jeremy Bentham)식 '공장제 유토피아'에 이른바 장애인이 설자리는 없었으며, 마침 진행된 거대 수용시설의 출현과 맞물려 장애인은 집단수용의 격리 대상자가 되었다.

특히 영국은 1834년, 개정 '구빈법(The Poor Law Amendment Act)'을 통하여 산업사회의 새로운 노동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아동, 병자, 광인, 심신결함자, 노약자 등 다섯 부류를 가려내, 이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동할 수 있는 자로 간주한다. 즉 일할 수 있는 신체(the able bodied)를 선별하기 위해 일할 수 없는 신체(the disabled bodied)를 규정하였고 여기에서 '장애(disability)'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그것은 그대로 장애인이란 용어로 고착되었다. 이처럼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으로 분리되면서 일할 수 없는 몸을 지닌 장애인들은 사회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기 시작했다. 모리스(Jenny Morris)의 "산업혁명 노동시장의 작동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시장의 밑바닥으로 처박아 버렸다."는 표현대로 그로부터 장애인들은 기나긴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장애인 복지의 이런 암흑기는, 전상장애인(戰傷障礙人)을 양산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지구촌 전체로 확산된 산업화의 후유증인 산재장애인의 대거 출현을 겪으면서 장애인 문제가 더 이상 장애인 그들만의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것으로 인식하게 될 때까지 계속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화 시기 이전엔 장애인들이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신에 맞는 직업을 갖고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의 삶을 영위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장애인들은 비록 직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공장제 노동 대세 시대로 흘러가자 장애인들은 생산력 없는 무능력자로 취급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집단수용시설의 등장과 맞물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에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가져온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이러한 장애인 복지 현실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이다. 자립생활운동은 1960년대 진보적 사회운동의 배경에서 움트기 시작하여, 1970년대 ‘재활법(Rehabilitation Act)’ 개정 투쟁으로 발전하였고, 1990년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제정으로 큰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세계 장애인운동의 주류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 복지 체계와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점도 함께 드러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만을 추구하다보니 장애라는 개념을 발생시킨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내 편입만을 궁극 목표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노동력과 생산성을 모든 것의 유일한 가치 잣대로 삼고서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낙인찍어 ‘장애인’이란 용어 자체를 만들었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과연 장애인 모두에게 온전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애벌리(Paul Abberley)가 말한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정상화(work-normalized)’를 통하여 체제 내로 모든 장애인을 단순히 합류시키는 것만이 장애인운동의 궁극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고, 이제까지의 장애인 직업재활의 기조가 포드식 컨베이어벨트가 놓인 공장제 단순작업의 노동현장에 장애인들을 투입시키려는 노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생산성으로 노동력을 판단하는 공장제 노동현장에서 장애인은 적응이 쉽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은 높은 이직률로 반증이 된다.

장애인의 고유한 노동권 확보 위한 장애인의 무노동권 주장

장애인의 무노동권(the right to not work) 주장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여기에서의 노동은 공장제 노동을 말한다. 설사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온전히 갖추고 보조공학의 발전으로 공장제 노동현장에 대한 접근성이 일정 한도 올라갈지라도 표준화된 시스템에 의한 공장제 노동현장에 전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 노동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유한 노동 형태를 시민권적 차원에서 확보하자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완벽한 얼굴, 완벽한 일자리, 완벽한 가족, 완벽한 몸을 갈망하는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기존 문화 가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 장애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다.

선천성 다발성 관절만곡증 탓에,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장애인운동가

테일러(Sunny Taylor)는 생산성 가치를 한 개인의 가치와 등치시키며 노동 예찬을 펼치는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인 공장제 기업 노동을 거부하면서, 그러한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누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또 영위하고 있다. 그녀는 “장애인이 노동 ‘기회’를 통해서만 이익을 얻고, 그런 기회에 감사해야 할 정도로 노동이 중요한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노동은 무조건 숭고한 것이고, 누구든 직장을 동경해야 하고, 임금노동자가 되는 것은 궁극적인 자유이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문화적 이상과 열망, 그리고 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입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을 노동현장에서 배제하는 구조적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의 역할과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통찰함으로써 공장제 노동의 임금노동으로만이 인간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주입시킨 사고를 전복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의 문화예술활동

이러한 흐름은 장애인 노동과 직업재활에도 새로운 전망과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천편일률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이 각자의 고유한 능력을 자아실현 차원에서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려면 단순히 외형적인 실업률과 고용률에만 집중하는 지극히 단선적이고 정태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고용의 질까지 염두에 두는 보다 동태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화시대를 맞아 장애예술가를 키워내는 등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직업재활 전문가로 볼 때 장애인 문화예술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비장애인도 그러하지만, 예술이라는 전문직은 생애를 관통하는 직종 말 그대로 천직이기에 직업안정 측면에서 이직률이 높은 장애인에게 적합하며, 칼 용이 말한 자아통합(ego integration)과 자아실현의 차원에서 직업만족도에서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립생활운동의 실천적 이념인 자조(self-help)와 자기관리(self-care)와도 맞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 장벽을 넘어 인식개선을 하는데도 문화예술은 가장 효과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장애인운동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진흥방안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인 장애인 문화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장애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의 권리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당위성은 우선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서 헌법적 가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문」 제27조 1항에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로, 「장애인복지법」 제4조 2항에는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로,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7조에는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을 독자적으로 두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대한민국 30대 대기업들에게 메세나(mecenat) 차원에서 장애예술인들을 육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곧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대기업들에게는 재화와 서비스의 효율적 생산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책임을 넘어 대사회적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기업을 향해 공유가치창출 곧 CSV(Creating Shared Value)까지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업이 수익 창출 이후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착한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갈수록 선호하고 상품 매입으로 이어지는 자발적 충성도가 높아져가는 까닭에 이런 현상은 트렌드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30대 대기업들이 장애예술인들 지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바란다. 지난 5월 30일 ‘2019 대한민국 CSR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었는데, 국제회의장을 가득 채울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기업마다 전담부서를

두고서 CSR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미 이것이 기업 이미지와 브랜딩을 넘어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스포츠선수단을 창단해 육성 지원하듯이,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해 육성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었으면 한다.

장애예술인 지원의 또 다른 방법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한 것이다. 현재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용 민간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3.1%)대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면 미달하는 그만큼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의 현실적 미비로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면, 이를 장애예술인을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로 채용해 의무고용률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2%를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장애인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UN에서 발표하는 바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10%라고 본다면, 2%는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이음센터’ 같은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권역별로 설립 및 운영해 장애인들이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예술인들에게는 활동공간을 제공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차선택으로는 기존의 일반 문화예술공간을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시설로 만들고, 신설하는 문화예술공간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시설로 건축해 물리적·정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 문화예술을 전담하는 ‘장애인문화예술정책과’ 같은 부서를 설치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이 모든 바램을 집약해 담은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참여 기회 보장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 발의)과 「예술인복지법」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조항에 ‘장애예술인의 창작금 지원’ 내용을 추가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도 조속히 처리되어 장애예술인들이 보다 안정되게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용적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에서

교육철학자 매슬로우(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와 안전, 소속과 사랑, 존중과 자아실현의 단계로 나누었다. 장애인에 대한 이제까지의 복지가 생리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부터의 복지가 지향해야 할 바는 소속과 사랑, 존중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아실현을 꾀하는 인간다운 삶에서 문화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조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포용적 복지 실현에 있어 장애인 문화예술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인간은 문화를 매개체로 한 심정적인 만남을 통해 인간존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일어나는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기에,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무는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의 과정, 곧 포용의 과정은 우선적으로 ‘문화의 옷’을 입고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 수립과 실천이 중요한 이유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2항에서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신속히 이행하여 장애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 사회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산업혁명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탈근대의 흐름 속에 맞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인 이 탈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산업혁명의 부산물인 공장들이 갈수록 도시 외곽으로 물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택근무 등 공장제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의 일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장애예술인처럼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도 속속 개척되고 있다. 이런 시대 현상을 주목하면서 효율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노동생산성에 따라 인간의 가치까지 결정지어 장애인들에게는 참으로 힘들었던 비인간적 체제를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가 멀지 않음을 기대한다. 나는 그것을 장애인 노동의 르네상스 시대라 부르고자 한다.

참고 문헌

정중규 등, 2013, 〈지금, 여기의 아나키스트〉, 이학사.

김도현, 2011,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Taylor S, 2008, 〈노동하지 않을 권리: 권력과 장애〉, 윤삼호 옮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토론 0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정종은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토론편

정종은(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는 바, 그 중에서도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와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국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1981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를 장애인 관련 ‘제도도입 단계’로 볼 수 있다면, 1998년 제1차 「장애인 복지발전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현재까지는 ‘제도정착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

한편 장애인 ‘예술’ 관련 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05년 장애인체육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된 이후부터로, 이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지원’ 사업이 장애인에게 확대되고(200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이를 반영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07), 문체부내에서 ‘장애인체육과’의 ‘장애인문화체육과’로의 확대 개편(2009), 장애인예술 관련 업무의 예술국 이관(2013) 등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민간을 연결하는 진흥기구로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장애인의 예술진흥을 위한 창작·교육·교류 협력 사업, 국가 및 지자체 위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3월에 설립된 것은 무척 큰 의미가 있다. ‘분리/수용’이나 ‘재활/보호’ 프레임을 넘어서 ‘인권/사회통합’ 그리고 ‘다양성/창조자본’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장문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직접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다각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전체 한국사회의 통합은 물론 창조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문원에서 연구 사업으로 진행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는 이와 같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과정을 고려할 때 향후 중요한 지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본 연구는 그간 진행되어왔던 ‘장애인 예술 관련 실태 조사’를 꼼꼼하

1) 정종은 (2016). ‘4월의 이음축제: 2016 장애인의 날 기념 축제가 특별했던 이유’. 문화예술지식DB. 아키스브리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게 분석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해외의 유사 연구를 포함하여 선행 연구에 대한 초점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통계평가 전문가들이 철저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간 실태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 빠져있던 부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설계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 표본의 확보 및 조사방법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기존 예술 통계와의 연계 및 특정 분야, 유형, 문항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졌다. 모집단에 대한 꼼꼼한 조사를 바탕으로 방문 면접조사(장애 예술인 416, 장애인 예술 활동가 584명)를 방대하게 실행한 것도 과거의 유사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덕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설문 분석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FGI를 통해 장애 유형 및 예술 분야별로 중요한 현황과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다각적이고 심층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를 바탕으로 1) 발달장애인의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 마련, 2) 전문화된 장애예술 교육체계 및 로드맵 제시, 3) 매개자(수어통역사 등) 양성 및 지원, 4) 장애인 예술활동의 직접 지원과 함께 향유 환경 개선 병행, 5) 장애 예술인과 장애인 예술 활동가에 대한 지속적 조사 등의 적절한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실태조사의 시사점에서 도출한 정책 제언이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및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예술 정책에서 선구적인 모델을 제시해온 것으로 꼽히는 영국의 사례를 잠깐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²⁾

서구사회에서 장애인 운동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60년대 말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사회운동과는 그 목표와 방법이 구별되는 ‘신사회운동’의 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평화운동, 여성운동, 생태운동, 지역자치운동, 흑인운동 등과 함께 새로운 권리와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깨우려는 신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지배적인 관점으로서 장애 및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개인의 ‘결핍’(deficits)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장애인을 동정이나 보호,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에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장애를 개인의 결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 및 ‘불평등한 환경’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1995년과 2010년 사이에 이루어진 장애인 차별에 관한 법제도의 정립과 더불어, 창조산업을 강조한 노동당 정부(1997-2010) 시기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본유적 가치 외에도

2) 정종은(2018) ‘영국 장애인 예술, ‘창조적 모델’의 표상이 되다’, 웹진 이름 창간호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Creative Partnerships’ 프로그램이 도입된 2006년부터는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정치 운동에 대한 몰두에서 벗어나 장애를 다양성과 창조성의 관점에서 혁신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창조적 모델’(creative model)이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바, 장애를 정치적 아젠다로 사용하는 사회적 모델과 달리 창조적 모델은 장애인의 신체를 심미적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³⁾

2012년 런던올림픽 개폐막식에서 언리미티드(Unlimited)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의 장애 예술이 전 세계에 커다란 울림을 준 것은 기존의 정체성 정치나 인권운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영국 장애예술인들이 보여준 당당하고 다양한, 수준 높고 창조적인 미학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예술의 새로운 가능성, 즉 창조적 모델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전례 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서 장애예술은 2012년 런던올림픽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이를 피부로 체감한 영국 정부와 영국 사회는 충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오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기치로 삼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는 2010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십 개년 계획의 다섯 가지 목표 중 하나로 다양성과 스킬(diversity and skills)을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장애예술을 진흥하고 있다. 또한 영국문화부와 예술위원회는 ‘Creative Case for Diversity’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성 관련한 예술의 역사와 동향을 폭넓게 소개하고, 관련 연구와 비평을 담고 있는 포털 사이트(<http://www.creativecase.org.uk>)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례포럼 개최, 예술위원회 및 예술위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의 다양성 관련 연차보고서(Diversity Report) 발간, 문화예술계의 평등성과 다양성에 대한 정보(Diversity Data) 관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장애인 예술 현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큰 틀의 전략적 목표와 비전속에서 ‘다양성과 평등성’을 중요한 의제로 삼아,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심이 예술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장애인 권익’만을 강조하면서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몰두하던 방식을 넘어서서,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작품/증거를 창조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세밀한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준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앞서 소개한 우리사회에서의 장애인 (예술) 정책의 발전 과정이 영국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궤적을 밟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토론 02

Before와 After 그리고 Difference와 Development, Satisfaction

최승원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비상임 고문

Before와 After 그리고 Difference와 Development, Satisfaction

최승원(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비상임 고문)

어쩌면 모든 예술인들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예술적 활동을 위해 경제적 압박만이라도 없었으면 다른 불편함은 다 견뎌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다.

1990년대 활동을 하다가 많은 장애인 예술활동가들을 만났다.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은 어떡하면 무대에 오를 수 있는지 그 기회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였던 기억들이 많다.

그 시절에 예술적인 인식의 문화프로생활을(자업자득) 하는 위치에서 일반 사회와 장애인 예술가들을 바라볼 때면, 장애인 예술가들을 동등한 실력의 레벨로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기회를 부여한다는 식의 개념이었던 것 같았다. 내 개인적인 경우는 미국에서 출세하여 한국에 왔더니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 성악가란 표현이 따라 붙었다. 미국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수식어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오히려 불편해 하지 않고 한국적인 사회에 접근하는 또 다른 경로로 삼고 연주활동을 해왔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내가 무대에 오를 때면 모두가 나의 장애에 집중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연주를 마치면 그들은 나의 장애보다는 나의 노래에 박수를 보내왔고 나의 장애를 개념 하지 않고 나를 그냥 음악가, 아티스트로 인식하며 대접해주었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사회인식이라는 좋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대략 260만 안팎이라고 한다. 그 중에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대략 25,722명(내가 알기로는 더 엄청 많은데)이고 장애인 예술인은 5,972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다소 편차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전보다 참으로 엄청 발전한 결과를 보고 있음을 깨닫는다. 사람 인원수 증가하고 그와 더불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Needs)들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방향으로 흘러서 정책이나 시설적인 면에서 좀 더 장애인들의 편의를 기초하는 배려가 실질적으로 다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장애인 예술계의 모습인 듯싶다.

그런데 문제점 하나하나씩을 로드맵 없이 해결하다 보면 나중에 정리하기 정신없고 계획성 없는 혼돈으로 어느 것이 우선적이어야 하는지 답답함을 초래 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좀 더 틀에 의한 복합적이고 궁극적이고 통합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하나씩 쌓아 올리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작금의 장애인 예술계를 바라보면 제일 우선시 되

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여 포화상태처럼 늘어나는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일반 예술계처럼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풀어가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장애인 예술계 앞에 놓여있지만 내가 교육받고 체험한 예술세계에 있어서 분명한 진리는 보다 전문적이고 장애를 바르게 바라보고 지원하는 정책과 환경 속에서 집중과 인고의 시간을 투자하면 나름의 발전과 만족은 찾아온다는 것이다.

토론 03

장애예술인의 지원정책 마련 및 문화권 보장에 대한 방안

배은주 |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이사장

장애예술인의 지원정책 마련 및 문화권 보장에 대한 방안

배은주(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이사장)

- 들어가며

장애예술인이란?

장애(Disability)를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두 입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의학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물리적 혹은 심리적 장애로 보고,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장애인과 사회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소외 받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장애는 예술적 모델로도 볼 수 있다. 예술적 모델로 장애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handicap으로서 장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Able Art”로서 하나의 장르로 명사화시켜 장애예술을 바라보는 예술적 모델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전 연구원의 장애예술인의 대한 정의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생성된 독해로 보는 것이 내 관점이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 활동” 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장애예술인은 “장애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장애예술인 정의에 가깝다.

- 2018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장애인생활실태조사를 실시, 보건복지부는 실태 조사할 때 무엇보다도 장애 출연률과 인구 표본률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표본률에 따라 그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예술분야의 장애인 실태조사 때 표본률이 천명이 안 되는 실태조사였으며 그 이후 2018년도에 똑같은 표본률도 7년 만에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물 앞에 놓여있다. 미국의 표본 20,847, 가구의 35,735가 응답(20,847명의 성인과 대가구 3,506명)했다.

장애 인구수 추정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문화예술계는 현재까지 실정에

맞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미비함. 2012년 장애인문화예술실태조사가 가장 마지막 응답표본이 장애인예술인 591명, 향유 장애인 409명, 1,000명도 안되게 표본률로 실태조사가 나왔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함.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표본 장애인 5,000명을 대상으로 15개 영역으로 실시,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배경은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참여 시 애로사항 등 실태와 현황 파악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있다. 조사 표본은 5,000명으로 15개 장애로 장애 유형을 나눠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유형은 15개로 정리되었으며 내부기관장애, 외부 기관장애, 정신적장애로 분류, 정신적 장애는 다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정신적 장애로 최종 분류되어 적용 되고 있다. 표본률 1,000여명이라는 것과 조사모집단의 대한 아쉬움이 있음. 중국은 어떨까?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남달랐다. 무려 장애인증을 소지한 장애인은 3,400만 명으로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명제로 실시한다. 장애인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그 위치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2015년부터는 정부 측면에서의 장애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장애인증을 소지한 장애인 3,400만 명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실태조사를 보면 조작적 정의를 했다고 해도 지체장애인의 인원내 지적장애인의 수가 아래의 표를 보면 지체장애인의 수보다 지적장애인의 수가 두 배로 많다. 단체 모집단을 보면 복지관 235, 장애인주간보호 522, 장애인거주시설 595, 장애인공동생활 575, 보호 작업장 11, 자립생활센터 1, 장애인단체 32, 장애인문화예술단체 148 이다. 조사모집단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빠진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 몇 년 전처럼 장애인들의 거의 문화향유생활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바우처 카드로 영화만 봐도 문화생활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2013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파악한 것을 보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응답기관에서 2011년 대비 2012년에 새로 발굴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1개소 당 평균 31.89명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00개소(65.8%), 개소 후 2012년 1년간 기준으로 자립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명(49.3%)이 가장 많이 나왔다. 또한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실태조사인 만큼 더 포괄적으로 면밀하게 장애예술인 실태조사가 진행되는데 장애인자립생활도 포함되었다면 조작적 정의에 의해 더 괄목할만한 결과물을 도출해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 예술인-5,972명]

(단위:명)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서양 음악	대중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합계
장애 유형	합계	1,075	1,031	246	27	-	2,290	188	317	251	155	62	3	-	327	5,972
	지체 장애	469	214	76	14	-	351	46	32	35	17	3	-	-	137	1,395
	시각 장애	13	31	5	-	-	225	41	58	10	8	-	-	-	20	411
	청각 장애 및 언어 장애	56	31	5	-	-	28	2	5	16	-	3	-	-	1	147
	지적 장애	328	480	104	7	-	1,013	73	133	155	96	40	-	-	128	2,557
	자폐성 장애	42	141	16	-	-	559	17	28	11	5	-	3	-	39	861
	뇌병변 장애	102	99	8	6	-	70	5	14	18	23	13	-	-	2	361
	기타	65	35	32	-	-	44	3	46	7	5	3	-	-	-	241

[장애 예술 활동가-25,722(35,871명)]

(중복응답, 단위:명)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서양 음악	대중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합계
장애 유형	합계	1,230	6,675	5,017	969	95	7,886	4,619	2,171	2,324	1,363	1,726	87	49	1,659	25,722
	지체 장애	383	701	697	78	-	835	536	316	59	214	245	20	1	251	4,334
	시각 장애	39	58	130	6	-	1,113	474	492	655	307	32	1	1	38	3,348
	청각 장애 및 언어 장애	7	187	160	31	-	243	32	67	28	20	5	7	1	36	824
	지적 장애	582	4,599	3,371	604	79	4,247	2,830	1,009	1,386	671	1,067	44	1	1,111	21,602
	자폐성 장애	120	606	371	128	16	692	198	144	95	99	150	6	26	107	2,758
	뇌병변 장애	71	414	153	99	-	513	421	93	50	38	211	3	4	83	2,153
	기타	28	111	136	23	-	244	128	50	51	14	16	6	15	33	852

-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하여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법의 정확한 이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강제성의 부재, 처벌조항 없어서 권리구제를 넣고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하는 방식으로 2008년 시행이래,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자체의 조례를 이끌어 내는 등 상당부분 아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강제성 부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조례 등을 이끌어 내는 교두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제15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로 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 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그 외 문화예술진흥법 내 장애인문화예술관련 조항은 아래의 법조항이 유일하다. 수년간 장애예술계는 문화예술국고보조금 관련해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및 이음센터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과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체는 단체대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풀뿌리는 풀뿌리대로 문화예술 보장권과 향유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애인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장애인문화예술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2항	제15조 2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5조 3	제 15조 3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장애인포함)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토론 0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생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 「장애예술인지원법률」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 –

송은일 | 문화날개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예술인의 생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 「장애인예술인지원법률」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 -

송은일(문화날개자립생활센터 소장)

1981년 「장애인복지법」 이후 38년이 흘렀고,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도 12년이 지났다. 너무나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원 법률이 왜 필요한지, 장애 예술인 지원 법률이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제정 되어야 할지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중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이가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장 의식주가 걱정인 장애인들에게 있어 문화예술정책이 꼭 필요한 것일까?’, ‘장애 예술인 지원 법률이 제정 된다면, 장애인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수 없이 들었던 질문들이다. 하지만 위 질문들에서 ‘장애인’이라는 한 단어만 빼다면, 그 질문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장 의식주가 걱정인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정책이 꼭 필요한 것일까?’, ‘예술인 지원법률이 제정된다면,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Yes!’, ‘그렇기에 더욱 더 Yes!’라고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 뿐인 건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

요즘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떨친 이들 중에 방탄소년단, 조수미 같은 문화예술인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문화예술분야는 이제 공기와 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노래 실력은 날이 갈수록 탁월해지고, 춤 실력은 세계 각종대회를 휩쓸 정도이며, 우리나라의 드라마들과 영화들이 외국에 수출되는 이때에, 장애인들은 문화예술을 그저 향유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문화예술인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장애인을 붙여서 ‘장애인 문화예술인은 필요한가?’라고 다시 질문한다면 ‘당연히 꼭 필요하다.’라고 답할 것이다. 신체의 한 부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온 몸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각을 잃었다고 해서, 청각까지 잃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로 인해 청각이 더욱 발달할 수 있을 것

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문화예술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리를 다쳤으니 노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문화예술분야만큼 사람의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가 없을 것이다.

비장애인 성악가가 노래할 때와,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할 때, 관중들은 어느 쪽에 더 감동 받을까?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씨의 피아노 연주가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감사로 다가오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 장애예술인 5,972명, 장애인 예술활동가 25,722명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2006년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에서의 등록장애인의 2%⁴⁾ 즉 약 5만 장애문화예술인의 숫자와 비교해 봤을 때 절반으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장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된다. 이 숫자가 제대로 조사된 통계에서 나온 수치인지조차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향한 실질적 정부 지원은 현재 장애 예술인 뿐 아니라 미래의 장애 예술인들의 발굴·교육·생존문제에까지 지속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이로써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예술인지원법률」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예술인 지원이 급하지 않다는 인식이 대중의 무관심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장애예술인의 97%를 가난을 넘어 생계의 벼랑에 서게 만들었다. 200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예술인의 96.5%가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63.9%가 수입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장애인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 짓지 않고 한명의 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하물며 한명의 장애인이 예술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필요한 지원뿐 아니라 재능 발굴 및 예술 활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생계만 근근이 이어가는 장애인들에게 예술 활동은 사치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조차 받지 못하거나, 발굴조차 되지 못한 수많은 장애예술인들을 주위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타고난 재능과 끼가 있음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없고, 예술적 역량이 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 창작활동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고 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재능 있는 장애예술인들이 맘껏 예술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현재

4) 박영정,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연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의 시스템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장애인은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술적 재능을 전혀 타고 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씨나, 이탈리아의 테너가수 안드레아 보첼리,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 실낙원을 쓴 존 밀턴, 헬렌 켈러 등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타고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인권헌장 제7조에는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어떻게 제정되어야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향유나 창작지원 이전에 무엇보다 생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애 예술인 자립을 위한 최저생계비 지원 동시에 “예술인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은 살아내야 하는 삶이기에 생존지원 즉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

장애예술인을 꿈꾸는 장애예술인 영재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성장한 장애예술인들에게 예술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의무 고용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립오페라단이나 국립합창단, 국립예술단, 시립예술공연단 등에 일정 비율을 장애인 고용을 할당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도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통해 증명되었다. 물론 장애예술인들의 범위 및 규정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차차 법률을 제정해 나가면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프리랜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장소 대여비 등에 공연지원비, 예술활동 물품 지원비, 예술활동 보조인력 지원비(반주자, 예술작품 설치 인력, 예술활동 중 보조해 줄 예술활동 보조인)가 지급되어야 한다. 프리랜서 장애예술인들에게 충분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정부적 지원이 가능해질 때 장애예술인들을 통한 보다 높은 창작활동 결과물도 기대

할 수 있다. 예로 ‘장애인 문화예술바우처카드’가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도움을 받았는데, 이 제도처럼 장애예술인에게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여 일정금액을 매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문화예술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결과물이 아닌 어느 한 순간의 재치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기에 작품 활동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활동보조사 업무 중 예술활동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약 40%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의 보조 없이 예술활동을 하기란 매우 힘들다. 활동반경이 제한됨으로써 예술활동 자체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활동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비장애인 취업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기존 가사활동, 사회활동, 신체활동 기타의 활동영역을 넓혀서 예술활동 분야가 추가 될 경우 예술활동을 하는 비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취업 영역을 제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 활동분야 지원은 특수한 분야로 기존 가사, 사회, 신체 외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지원 되어야 현실적일 것이다. 기존 바우처 시간은 가사, 사회, 신체 등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예술 활동 바우처는 별도로 문화예술활동 영역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 3가지 주장을 골자로 해서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예술인지원법률」제정을 조속히 상정하여 통과해주시길 바란다. 임의규정으로 모호한 법체계가 아닌 강제규정으로 실속 있는 법률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조금이나마 장애예술인의 문화 창작 욕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처절하리만큼 열악한 장애예술인의 삶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행보한 사회
장애인이길로